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008호 2011년 8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1225 W. 190th St., #605 Gardena, CA
92484,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sual@yahoo.com



제9회 남가주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별빛 꿈과 달빛 낭만이 가득했던 밤

동문가족 300여명 모여 멋진 오후를 만끽

‘남가주 동문 가족의 밤’ 행사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30일 Highland Ave. Hollywood Bowl에서 열렸다.

각테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행사가 5시부터임에도 훨씬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든 동문가족들은 햇빛이 알맞게 가려진 숲속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오랫만에 만난 동문 가족들은

신후배가 모두 같이 한 자리에 모여 황금한 와인에 풍성한 음식으로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던 밤이었다.

이제는 남가주 동문들의 전통적 모임으로 자리잡은 이 행사는 저녁 식사후 멋들어진 야외의 원형극장인 Hollywood Bowl 공연 관람이 주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안혜정(가정대 77)영인숙(가정대

78) 동문은 “참가 동문 가족이 해마다 급증해 지난 해는 참가 티켓이 총 250개가 판매됐으나 올해는 310개가 팔렸다”고 말했다.

밤 8시 30분경부터 시작된 Hollywood Bowl 공연은 며 연예계 저명 인사로 잘 알려진 Michael Feinstein 을 비롯해 Florence Henderson, Cheyenne Jackson, Wayne Brady, Dick

Van Dyke 등이 화려한 밤의 멋진 꿈과 낭만을 선사해주었다. 다음은 지중단(농대 56) 동문의 공연장 Hollywood Bowl에 대한 기술과 이날 공연에 대한 글을 받게 수정한 것이다.

울창한 수풀 속에 1만8천명을 수용하는 Hollywood Bowl의 극장은 Frank Lloyd Wright에 의해 설계돼 1922년 시공, 1928년 완공돼 Los Angeles시의 명물이 된 것이다.

야외극장의 기원은 BC 5세기 그리스 도시국가의 하나였던 아티카의 8부족이 야외극장을

설치, 다산의 상징 디오니소스의 제사와 합창으로 시작돼 연극공연 경연과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된 것이 시초다.

이후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모두 모방했고, 그리스 멸망 후는 그리스 문화를 전수한 로마 제국이 지대한 저층권 지역 극장을 건립해 발전한 것이다.

2천년 전 산물선과 골짜기에 둘러싼 원형과 원형으로 세워진 야외극장은 1만5천명에서 2만명을 수용하는 대형 야외극장이었다. <2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외교통상부 김혜진 동문

한국외교관으로 미국부처셋파견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북핵협상과의 김혜진(29·시가관·사진) 동문이 한국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미국부처에 파견됐다.

서기관 김혜진 동문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인사교류 양해각서(MOU)에

따라 8월 파견됐는데 앞으로 1년간 미 국무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외교부는 김혜진 동문의 파견형식과 부서들이 국무부와 최종 조율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동문은 모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5년 외교부에 들어가 국제비확산과와 의전총괄 담당관실 북핵협상과를 가지면서 다양한 외교업무에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동문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2년 연수를 받은 것 외에도 외국생활 경험이 없지만 원어 실력과 외교 현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 지원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 계속>

시사만평

서울대 별인화를 반대하는 제학생들의 시작?



별인화 후 7-1-2은

공공 상임화 대기업

박준창(인문대 79·번호사)

기획·특집

수십년 지난도 1974년 8.15는... 8.15의 기억, 독립의 의미4~5면

종합

수상·교육·모교



컬럼비아대 물리학과 김필립 교수

제6회 '자랑스런 한국인상' 수상

“노벨상 후보 오른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그래핀’을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컬럼비아대 물리학과 교수 김필립(金必立 자연과학대 86·사진) 동문이 최근 LA에서 제6회 ‘자랑스런 한국인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 7일 제6회 ‘자랑스런 한국인상’ 시상식에 수상

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필립 동문은 “한인사회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노력을 격려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관심분야 연구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필립 동문은 지난 해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일화에 대해 “노벨상 위원회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미 상을 받은 두 분은 충분히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이라고 겸손해

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데 대해 김필립 동문은 “과학기술 분야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나 이런 1세대가 겪는 (주류 사회) 진입장벽이 없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컬럼비아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은 그래핀처럼 나노 단위 물질의 물리적 속성과 적용을 다루는 융합물질 물리학(material science)을 연구 중이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 계속 도전해 보고 싶다”는 김 동문은 한국 과학계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나타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정보 교류에 나서는 중이다.

김 동문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인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점에 대해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영동할 정도로 겨를 가진 ‘창의적’ 학생을 필요로 한다”며 “과학자를 꿈꾸는 한인 학생들이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향해 나갔으면 한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김필립 동문은 모교 물리학과에서 학사·석사 후 1994년 하버드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UC 버클리에 박사후 과정을 마친 뒤 2002년부터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리노이주립대 루시 박 교수

미국 교육자들에게 한국시조 교육



“한국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널리 알리는 것뿐 아니라 주류 문화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 외대 교수로 시카고 ‘세종문화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루시 박(박종희 외대 69·사진) 동문이 미국 교육자들을 위한 한국 역사 문화 세미나에서 시조 쓰기 강연자 8월 LA를 방문했다.

시카고 세종문화회는 지난 2004년 주류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결성한 비영리 단체다. 매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종음악경연대회, 영문 수필과 시조 부문의 작품경연대회, 작곡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주류사회에 시조를 보급하기 위해 영문 시조 경연대회뿐 아니라 웹사이트(www.sejongsociety.org)에 영어 시조 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

는 등 시조홍보를 하고 있다. 박 동문은 “영어로 시조를 쓰고 한국 문학을 읽으며 에세이를 쓰는 작문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세종문화회는 지난 2010년 4월 하버드대 한국 연구소장 데이빗 맥켄 교수와 일리노이 주립대 영문학과와 공동으로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시조 쓰기 워크숍을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미국내 중고교에 시조 쓰기가 확산돼 한국문화의 뿌리인 ‘시조’가 영어의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오길 바라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였다.

박 동문은 “영 시조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시조 경연대회는 응모 학생중 타인종이 90%에 달하며 오는 11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국 영어교사 컨벤션 대회에서는 시조 쓰기 세미나가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문화회의 역점사업은 한국의 일이 포함된 한국 문화를 서양의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는데 있다.

박 동문은 “세종문화회는 자원 봉사자들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주 한인들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한인 후세들과 타인종들이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해 다양한 문화를 누리도록 LA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 머릿기사 계속>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던 시절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음향시설로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것이다.

어둠이 깃들고, 하늘의 별들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시작된 이날 음악의 향연은 ‘Michael Feinstein and The Singings Stars of TV’의 미국 대중 음악의 향연이었다.

사실 한인사회는 미국 속에 살지만 한국의 음악과 한국 드라마, 한국 TV에 대표되어 있는 별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밤은 미국의 록 싱어들의 노래로 미국의 전통적 음악인 컨트리 뮤직·재즈·록·포크·팝 콘서트를 TV 속이 아닌 야외 무대에서 직접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멋있고 가치있

는 시간이었다.

이날의 공연판람이야말로 삶의 다양화, 멋진 하룻밤이 아니었을까. <관계화보 18면>

<면 김혜진 동문 기사 계속>

특히 서기관 김혜진 동문은 100% 영어로 진행된 심층 면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혜진 서기관은 지난 달 3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두고 두고 후회할 것 같아 큰 기대없이 미국 정부 근무를 지원해 응시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이어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이 앞으로의 외교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모교 재료공학분야 세계 10위권

논문발표수 11위, 피인용 지수 9위

ENS For Tissue 등 특정분야는 세계 Top 5

투스-로이터사가 지난 10년간 세계 재료공학 연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7월 1일 발표했다.

총 1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각 연구소·대학별 재료공학분야 SCI 논문 발표 수, 피인용 지수, 또 그래핀 등 재료공학 세부 분야의 ‘세계 Top 10 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보

면, 모교인 서울대는 재료공학 SCI 논문 발표에서 세계 11위, 논문의 질적 평가라 할 수 있는 피인용 지수에서는 세계 9위로 나타나고 있다. <도표 참조>

도표에서 ENS for Tissue분야는 Electrospun Nanofibrous Scaffolds for Tissue 분야를 말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 평가에서는

SCI논문발표 수 평가	논문 피인용지수	ENS for Tissue 분야
1위 도호쿠대(5,511)	1위 도호쿠대	1위 싱가포르국립대
2 칭화대(5,129)	2 MIT	2 송후아대
5 오사카대(3,618)	3 UC버클리	3 서니 스토니 브룩
9 도쿄대(2,980)	8 캠브리지대	4 버지니아 커먼웰스
11 서울대(2,580)	9 서울대	5 서울대

electrospun nanofibrous scaffolds for tissue 분야에서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 출처: Global Research Report: 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by Thomson Reuters (보고서에 제공된 표에서 대학이 아닌 기관은 제외하고 표기했다.)

한편 국가별 랭킹에서는 우리나라가 재료 공학 분야 연구 생산력에서 중국·미국·일본·독일 다음으로 5위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홍보팀>

서울대 미주 동향회보

발행인: 김은중(상) 상임고문:방석훈(농)
편집위원장: 지인수(상) 편집주관: 이기준
편집위원: 박양중(문) 김재영(농) 나철삼(문)
이종도(공) 김지영(사) 이원영(문) 김성수(문)
김종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 김기태(LA) 조동준(LA) 최용환(LA) 한창집(NY)
박순(WADC) 옥길원(CH) 이창광(LA) 정홍택(PA) 윤상래(MA) 김창수(NY) 임승배(SF) 장석정(CH) 이석구(NY) 김재환(WA) 정요진(LA)

8월호 차례

- 교포와 동포/미리안 앤더슨과 만남
- 수십년 지나도 1974년 8.15 육여사
- 8.15의 기억/광복절 독립의 의미
- 의학과 영성/한류 속의 언론
- 2030대 직장인 최고 멘토 안철수 교수
- 미주 동문동정

- 온통 잿빛 분화구 속에서 생명을 보아/결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 신앙은 신의 소리를 듣고 깨우치는 것
- 없어진 뻔한 영어 특수병이 실려/박진임 동문의 추천 시 감상
- 광고
- 지역 동창회 소식
- 러시아 방문기승/동문 시 감상

- 백남준의 천재적 예술성/나무를 심는 마음
- 미주재단 및 모교 소식
- 고국 동문 동정
- 동창회비·후원회비 명목·일일 24시간 등문 업소록
- 동창회 조직과 각 지부 회장단
- 광고

기고

칼럼 · 수필

교포와 동료



이명국(공대 59)
미주 총동창회 전 회장

오늘날 불과 4000년 전 쥬기
임스의 성형 원리를 보면 이것
은 영어가 아닌 완전히 다른
나라 글자 같이 꽤 비어 고전
을 공부 안하고서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 이처럼 영어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글도
“Love” 라는 말은 조선조 후
기까지 “사랑”이었으며, 그리고
“생각한다”는 말은 “사랑”
이었다.

그런데 한 예로 ‘이런이’ 라는
최초의 열정 유망가 ‘로다
(Love)’ 한데도 이가기가
꼭스러웠던지 “나”는 그를
생각(사랑)했다” 고 이야기하
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다 세월이 흘러 ‘로
다’는 영어에서 “생각한다”
는 ‘사랑’ 이 ‘로다’는 뜻으
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다가 나의 젊은 시절에
들어온 종종 ‘사랑한다’는
단어가 꼭스러웠던 ‘사랑’ 이
란 단어 대신 “좋아한다”를
쓰게 됐다. 그러나 일제시대
‘사랑’이란 단어가 없었
고 그 대신 “좋아한다”
가 훨씬 더 모호했다.

또 하나, 내가 글을 쓸 때
“wife” 라는 단어를 쓸 때
나 만족스럽다.

“미누라”라고도 쓰며 어떤지
친박해 보이고, “씨”라고
쓰면 공평히 내숭때는 것 같
고, 그래서 나는 “질사”라
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묻는다.
“질사”란 어떤 단어가 “미누
라”와 “씨”라는 단어를
보다 나은지 모르겠다.

이러한 글을 쓰면서 “나도
꽤나 옛날 사람이구나” 하듯이
는 웃음을 지어진다.

우리를 젊은 세대의 젊은
보고 “이모”라고 부르는 사
람이 있는데, 그게 “오빠”
다. 또 석당이나 가계에
가면 언니들 그 “아비”라
고도 부른다.

나, 언젠가 “이모”라는 단어
는 영어에서 그 값이고, “아
비”나 “이모” “언니”의 뜻도
달라졌지 같다.

내가 세상살이해 왜 이런 글
을 쓰는지, 어떤 일이 편지
를 부려 나의 귀 주스가
될 20여일 되고 돌아서 나래

배달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보통 전 실린 나의 글에
“교포”라는 단어를 “동
포”라고 써야 했다”며 그 이
유를 분석해서 보내는 편지였다.

나는 우선 그 글의 내용이 나
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한국
어를 써서 쓰는 것일뿐 해박
한 한자지식에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교포”란 비유 비하
하는 뜻인데 왜 스스로 비하
하는 단어를 쓰느냐는 등 그
의 주장에 대해서 나의 생각
은 매우 다르다.

우선 그 글은 “교포”라는 단
어는 화제에서 시작했는데 화
제란 정립전쟁 후 순전히 일본
에서 취학의 생활을 하는 자
기나 나라 사람을 두고 붙였으
며, 이것은 다대 단 거기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사실 “화교”의 “교
(僑)”자는 “나”의 “(僑)”와
는 다르다. 또 시대의 변화에
당시 붙였는데 거의 같은 사
유라고 인식했다. 또 이에는
젊은이를 물론 미국에서도 대
부분 “가짜”가 아니라
“실용한 부자”로 인식하고 있
다.

또한 지금 젊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포”라 하면 시대에
서도 젊은이 대상이었던 것
으로 여겨졌다.

이제 “화생”이나 “교포”
란 단어 비하의 뜻은 전혀
없고 나라는 단정한다. 오히
려 “재미 교포”라는 말이 “재
미 동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재미”라는 보인다는 느낌을
주며 “사실한 동포”라는 느낌
은 장차의 시 때문일지, 아니
면 10-20년 전 시대에 가면 미
국의 논으로 나래 보면 거의
가장 정립전쟁.

또한 나의 장래 또는 무의식
속에 “교포”라는 단어와
“교포”라는 단어는 그 단어
의 유래를 따지기에 전에 나의
미리 속에 단어에 착륙한
것이다(Implied Connotation)

을 가지고 있다.
“동포”는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을 모두 적대해 있는
아는 것 같다. 대동방이 “7천
만 동포여이로...” 한 노래,
“해의 동포 지리...” 운운한
해는 “동포”가 당연하고 아
주 자연스럽다.

오늘 로스스 대학교에서 첫
세대를 세대에 있는 한민족
중의 한민족을 모두 적대해 있
었다. 이것에서는 재미 교포, 재
일 교포, 중국에서 온 조선족,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족
을 사할문도 대대적으로...

이 글을 마치며 내가 쓴
자 그런 생각이나 해서 인터넷
에 올렸을 줄이기에 보인다.

대부분의 글 내용은 “동포”
란 말을 나쁜 한민족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에, “교

마리안 앤더슨과 만남

이명국(음대 52)
조지 워싱턴대 음대 전 교수

20세기에서 잊을 수 없는 고
전적 예술가와 따뜻한 인간미
로 우리를 감동했던 마리아
앤더슨(Marian Anderson
1897-1993)은 나의 음악 인생
에도 큰 영향을 준 분이다.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우
리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
민을 갔다.

그 해 여름엔 이듬해인 1952
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했다. 부산시 송도에 세워
진 임시 캠퍼스가 우리의 배
고교였다. 모든 것이 낯
설고 몸과 마음이 고달픈 것
을 안았던 시절이었다.

그 해 여름엔 이듬해인 미국
의 흑인가수 마리아 앤더슨의
역사적 공연을 마친 그녀
를 필리핀 공연을 위한 공연을
위한 해안했다. 미국 공보관과
한국 음악인협회 협찬으로 한
주 시단을 위한 독창회를 열
게 되었다.

1953년 5월 28일 부산 대동동
제3 곡예관엔 정장에서 아
의 음악회가 열렸었다.

그 전 날부터 비가 내리 마
음을 줄이고 있었던 데다 땀
까지 났기 때문인지 마리아
앤더슨이 물러났다. 어떤 사
람들이 제정인지 나의 뒤로
돌고 있을 정도로 초자연적
을 이루었다.

대동동 곡예관엔 건물은 원
래 정장 송고학교 교사(校舍)
였는데 그 교장이 당시 아
의 음악회를 주관하고 있
었다.

이름 후 나가 본선에서 3회
입선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의 입상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였을 기록이었던 것이다.

그 해 앤더슨의 위업이 당
당할 때만 연주자 프랜스
루프(Francis Rupp)와 같이 부
대위로 나타났다. 그녀가 관
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마
주하게 울려 퍼져 나왔다.

우리는 그 순간 전경의 그
통과 피난생활의 쓰라림을
느꼈다.

당시를 묘사한 앤더슨의 일
기에는 “우리는 군복을 입고
군을 비행기로 대우까지 갔
고 다시 군용 기차로 부산에 도착
했다. 한국 전쟁의 치열한
파괴와 파괴가 있었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

그같은 참담한 파괴의 폐
해로 앤더슨은 열광적인 한국
청중의 환영을 받으며 얼마
나고 기뻐했다.

앤더슨은 슈베르트의 ‘아
베 바리바’로 공연 프로그램
을 시작했다. 공연장이 매
번 가득 찼다.

이런 시점 앤더슨은 필리
핀인 ‘조르베’의 글곡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주
했다.

소리가 청중을 압도했다.

성모 마리아에 간주하는 전
지하고 거룩한 기도는 그의
이유적인 긴 호흡을 타고 신
비적으로 모든 제재로 우리
를 이끌었다.

그는 분명히 전적으로 피
해된 전 우리의 마음과 상
상의 자유를 성모로 간주하
는 것이었다. 그 기구의
관용은 우리의 그 순간
관용은 모든 기도와 불
안정한 마음을 안정
시켰다.

후반부는 인종차별의
악마로부터의 해방과
박해의 해방을 위한
노란색을 위한 연가
를 연주했다.

그의 입가는 “성모를
관용하라”는 노래였다.
앤더슨의 연가는 성
모를 위한 것이었다.

그 후 나는 음대를 졸업하고
그녀의 남동생인 음악학
과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나
는 1953년 앤더슨의 첫
남동생인 그녀의 노래를
듣고 음악 연
주하는 영혼의 작업이 기
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작업이 기
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
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더슨의 영혼은 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있었고 그의 노래는 성악가
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음악계의 최고 특기였다. 그
는 1930년대 영국과 독
일에서 유학을
했다.

그의 노래는 아름다움
과 호소력을 겸비한
성악계의 최고 특기였다.
그는 1930년대 영국과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그 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연의 요점이 겹쳐서
성악계에 그
의 이름을 새겨
주었다.

기 고

수필·칼럼

의학과 영성



동문 동정

공연 · 출간 · 공연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

LA공연에 1천200여명 열광의 도가니

지난 7월17일 American Dream Supporters(공대 동광식 디렉터) 주최로 나성 영락교회에서 UCLA 한국음악 기금 모금을 위한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 공연이 개최됐다. 1천200석이 넘는 본당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한국 민요·가곡, 오페라 아리아, 판소리 등 폭 넓은 레퍼토리로 감동을

주는 연주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 갈채를 보냈다. 박인수 교수와 신동원·김부섭·김성준·조한웅 동문의 우렁찬 연주는 나성 영락교회 담을 훌쩍 뛰어 넘어 먼 하늘로 울려 퍼졌다. 특히 세계적인 테너 신동원과 김부섭 동문의 폭 넓은 음량은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했다.

(왼쪽부터) 김부섭·김성준·박인수·신동원·조한웅 동문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Soprano 김한아 동문의 참신한 연주는 관람객들을 황홀의 경지로 몰아 넣었다. 박인수 교수의 이 공연은 22일 파사데나 드림교회(Dream Church)에서 2차 공연을, 그리고 27일에는 나성 순복음 교회(Full Gospel)에서 3차 공연을 가졌다. <AcropolisTimes.com 홍선재 기자>

김득해 목사

'대동강에서 허드슨강으로' 펴내



동문 김득해(사진·미국장로교 동부 한미노회 사무총장) 목사가 '대동강에서 허드슨강으로(From Daedong River To Hudson River)'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고 지난 8월 6일 뉴저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득해 목사는 일본유학을 마친 부모가 독립운동을 위해 간 중국 봉천에서 태어났다. 해방이 되자 평양으로 옮겨 대동강을 바라보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다 1.4후퇴 때 피난, 대전에서 자랐다.

그 후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에서 공부했다. 지

난 1967년 도미해 프린스턴 신학대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마치고 컬럼비아대에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대형 외국계 리서치 회사에 입사해 부사장까지 올랐으나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다.

2001년부터는 동부 한미노회 사무총장으로 총회 174개 노회 중 수년 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오픈노회'가 되는 데 그가 크게 공헌했다.

'평양에서 뉴욕으로'라는 부제로 된 이 책은 한국어·영어를 병행해 에세이·설교문·성경강해 등을 담았다. 김 목사는 "전쟁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항상 나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돕고 감당을 인도했다. 이 손이야말로 내가 의지하고 믿는 주님의 손이었다는 깨달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회를 맞은 김 목사는 '대동강...'과 함께 '임진왜란에서의 승병(The Korean Monk-Soldiers in the IMJIN Wars)'을 책으로 펴냈다.

'임진왜란...'은 그가 컬럼비아대에서 비교종교학을 전공하고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위주로 하고 있다.

김항선 의학박사

"100세까지 살아야요"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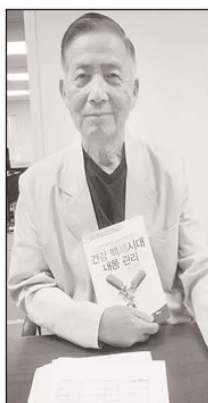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와 자기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40여년 동안 내과의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에너하임힐스 거주 김항선(76·사진) 의학박사가 자신의 진료 경험을 살려서 '건강 백세시대 내 몸 관리'(출판 문우사)라는 건강서적을 최근 출판했다.

김항선 박사는 알기 쉽게 풀이한 질병과 영양 이야기인 이 서적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이들이 가진 공통점을 1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그는 건강장수 십계명으로 ▶성인병 예방에 힘쓴다 ▶암을 예방해야 한다 ▶담배를 끊어야 한다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축적하지 말아야 한다 ▶신체를 항상 움직여야 한다 ▶파식과 과음을 피한다 ▶오염된 물질을 피한다 ▶예방주사를 맞는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한다 등을 꼽았다.

김 박사는 "현대사회는 의학이 발달하는 등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를 잘해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계속해서 늦추



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카이저 병원 벨플라워 분원 내분비 내과 병원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 은퇴했다.

김 박사는 한인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화와 성인병은 반드시 늦출 수 있다'(2004년), '해외여행자를 위한 건강 가이드'(2005), '갑소사! 우리 아이가 성인병을 키우고 있다니!'(2006) 등의 서적을 펴낸 바 있다.

모교 의대 1년 수료 후 1954년 미국으로 유학 온 김 박사는 필라델피아의 하네만 보건대학원, 하네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CCM리더 성가사 박종호 동문

'아름다운 세상' 간증과 찬양 콘서트

한국 CCM계의 대부로 불리는 성가사 박종호 동문이 지난 7월 16일 베델 한인교회의 콘서트를 통해 LA에서 처음으로 새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엔 선보인 '아름다운 세상'은 최근 발매된 12번째 정규앨범이다.

9년만에 발표된 정규앨범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6월 13-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콘서트는 대회 매진을 기록해 그가 '한국 CCM계의 살아있는 전설'임을 재확인했다.

박종호 성가사의 LA공연은 'Summer Concert with 박종호'라는 주제를 아래 지난 7월 16일 어바인의 베델 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프뉴마워십'의 정유성 목사는 "11회 프뉴마 워십 행사로 열린

콘서트는 1부는 자작곡을 오보에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의 어쿠스틱한 연주와 메시지로 잔잔하게 풀어가고 2부는 새음반을 들고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온 박종호 성가사의 간증과 찬양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음반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헤리

티지(heritage)' 등 한국 최고의 CCM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해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모교 음대와 미국 메네스 음대를 졸업한 정통과 뮤지션이자 한동대 객원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박종호 성가사는 무겁고 진지하기만 한 CCM의 틀을 깨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 1988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CCM 가수로 데뷔한 박종호 성가사는 현재 앨범 판매량만 60만장이 넘는 등 통산 200만장이 넘는 한국 CCM 최고의 판매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하고 있다. 천사합창단은 이날 여러 장르의 찬양 성가곡과 함께 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등 한국 민요와 가곡, 그리고 러시아 민요 등을 들려주었다.

김바울 목사는 모교 음대 작곡과를 졸업, 러시아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며, 음악을 통한 세계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천사합창단 공연

김바울 목사가 지난 1991년 러시아에서 창립한 천사합창단이 지난 7월 31일 루터빌 소재 불티모어 교회에서 공연했다.

러시아 여성 9명으로 구성된 천사합창단은 세계를 돌며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

동문 동정

취임 · 활동 · 출판(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인용균 박사

재미과학기술협 SD지부 12대회장 취임

매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재미과학기술협회 샌디에이고 지부(KSEA-SD)의 12대 회장에 동문 인용균 박사가 취임했다. 바이오와 통신 기술이 융합된 지역적 특성상 우수한 한인 과학·기술 인력이 몰려있는 SD지부는 전 미국에 70여개 지부가 존재하는 재미과학기술협 중 등록 회원수 규모로 상위 3~4번째를 오르내린다. 전문가 단체로서 회원간 교류 차원을 넘어 지역 한인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력과 잠재성도 큰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연간 활동상도 점차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5년부터 KSEA-SD에 가입해 활동해오고 있는 신임 인용균 박사는 임기 중 역점사항을 단체의 양적, 질적 확대

와 더불어 커뮤니티 내 역할 확장 등 세가지로 꼽았다. 양적인 확대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박사급 이상이 돼야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학사, 석사급 비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조직원과 접촉계획을 세워두고 점차 세부적인 방법론을 강화해 실천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기존 회원들의 단체 활동 내용의 질적인 향상이다. 전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원들이지만 결정적인 시점에 이민자로서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이인 회장은 “단체는 회원들이 이같은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연자이자 실질적인

제미과학기술협 SD지부 인용균 신임회장이 단체의 양적, 질적 성장과 커뮤니티 내 역할 확장 등 임기내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협력자”라고 강조하고 “단체를 통해 회원들이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일자리를 찾거나 협력해 일할 사람을 찾고 관련 사업을 하는데 조언을 받아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며 “최근 KSEA 본부에서도 5000여 회원들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했으며 그같은 소스를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커뮤니티 활동 강화 부문이다.

연례 치러지고 있는 수학·과학 전시대의 저변확대는 물론 올해부터 실시해 온 한인 커뮤니티의 잡지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들이 과학 대중화를 위해 칼럼을 게재하는 등 기존 활동은 지속 강화하며 지난 8월 13일 시행한 바 있는 바이오 전공을 꿈꾸는 고교생들을 위한 ‘바이오 사이언스’ 세미나와 같은 행사를 펼칠다는 한 가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해부터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과학 전문가 집단으로 역할해 오고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 참여를 넓혀 널리 봉사한다는 의지다.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 MIT공대에서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회장은 2004년부터 파-테크(FAR-TECH)사에서 제품개발과 관련해 클라라드 알렉스 불만정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 파이낸셜 이원재 동문 FGS한인커뮤니티 센터서 경제강의



모건스탠리사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이원재(사진)동문은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 경기와 상관없는 유일리티 관련 주식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모교 경제학파를 졸업한 이원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코오롱에서 근무했으며, 미시간대에서 MBA를 마친 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사우스폴 등을 거쳐 현재 모건스탠리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FGS 한인커뮤니티 센터서 경제 강의도 하는 이 동문은 “한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모두 어렵고, 심지어 채권 시장도 이자가 낮아져 별다른 재미를 보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인들이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어드바이저는 2가지 투자 관련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등 이머징 마켓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

한국은 금리만 3%대로 환율 등을 감안하면 의외로 합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투자회사나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투자처는 폭풍이나 천연자원 등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은 비싸다. 천연자원과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이 동문은 “자산가치가 떨어졌을 때 상속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IRA나 401k처럼 세금을 유예하거나 세금을 줄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 경제와 관련된 서적이나 신문 등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숙 동문 2세 변호사 캔디스 조

LA시 전시컨벤션커미셔너 취임



고 소감을 밝혔다. LA 글자의 로컬 ‘집은 더 & 크리치’의 상법전문 변호사로 국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 기업매매, 국제 상거래, 회사 사업구조, 법인제 설립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씨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시의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고 현재 자라나는 한인 2세, 3세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명감에 커미셔너직을 기쁘게 수락했다”고 전했다.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자란 조씨는 1997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스페인·정치학을 부전공으로 졸업했다. 또한 2002년 USC 법대를 졸업해 현재의 로컬에 스카웃됐다.

조씨의 열정과 노력은 그를 1천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로펌의 특별위원회 부의장을 맡게 했고, 서열순위 2위에 올러놓았다.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

한국 작곡가 모음 CD출반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한국이름 민유경)씨가 지난 7월 26일 한국 작곡가들의 곡으로 구성된 CD를 나소스 레이블로 출판했다.

‘파문(Pa Mun: Ripples on Water-사진)’을 타이틀로 한 이 앨범엔 윤이상·강석희·김정길·최우영·박영희 등 다섯

명의 현대작곡가의 독주곡이 담겨 있다.

수복곡은 윤이상씨의 5개의 연주곡과 간주곡 A, 재독 작곡가 박영희씨의 ‘파문’, 서울대 음대 교수 강석희씨의 ‘피아노 스케치’, 김정길씨의 ‘고풍(어린시절의 기억)’, ‘향함’, ‘독버너’ 그리고 최

우정씨의 전주곡 등이다. 민유경 동문은 예원고교 졸업 후 모교 음대 기악과를 수석 입학했다. 그 뒤 1학년 때 이승 김남윤 교수를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수학했다.

한여름에 대학 중이던 지난 1995년 영국 예루자 메누힌 국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으며, 줄리아드 음대에서 석사학위, 맨해튼 음대에서 장학생으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 동문은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 뉴욕 심포니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등 국내외 주요 오케스트라 인터내셔널 컴퍼티션 우승자로 지난 2002년 카네기와 일리노이주 홀에서 전문음악가의 피아노 에피드를 연주했다.

최근 민 동문은 엘라스카의 페어뱅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수단의 콘체르토를,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베로벤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연주했다.

지난 8월 24일엔 시카고의 데임아이라헤스 메트로리얼 콘서트 시리즈에 초청되어 독주회를 열었다.

민 동문은 폴백, 쇼팽 등을 연주했으며, 이 콘서트는 WPM 라디오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동문동정

도전 · 개인전 · 개발 · 연주(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주광일 전 서울고검장

DC서 68세로 미 변호사 최고령 합격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서울고검장으로 검찰에서 재직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장(현 국민권익위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주광일(68·사 진·세종대 석좌교수) 동문이 지난 2월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최근 합격통보를

받고 8월 8일(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선서했다.

주광일 전 검사장은 1965년 국민권익위원장(현 국민권익위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주광일(68·사 진·세종대 석좌교수) 동문이 지난 2월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최근 합격통보를

“나이들어서도 도전한 것은 후배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

“불혹(40세)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대체로 도전 의식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상의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 배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미국서 활동할 계획이나”는 질문에는 손사래를 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려는 학생들 뿐 아니라 주경야독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 DC를 비롯, 미국의 50개주 변호사 시험을 한 번 보겠다는 이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담은 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1만명에 이를 정도로 미국 변호사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 전 검사장은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로비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을 갖추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인

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난 7월 국내 법률시장도 개방되는 등 글로벌 시대에 국적있는 변호 활동을 위해서라도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은 미국내 로스쿨에서 26학점 이상 이수 요건을 갖추어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다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와 다른 주 변호사 시험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시험에서도 응시자중 합격률이 48%에 불과했다.

주 전 검사장은 지난 1974년 미국정부 초청으로 조지타운대와 조지워싱턴대에서 공부했다. 검찰 제직 시절 영어실력이 뛰어나 1978년 이른바 ‘코리아게이트’라 불린 박동선 사건 당시 한국을 방문한 법무부 차관보가 이끈 미국 검찰의 조사 때 한국측 통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스피치 쉐련의 소질을 영어로 모두 다 읽을 정도로 영어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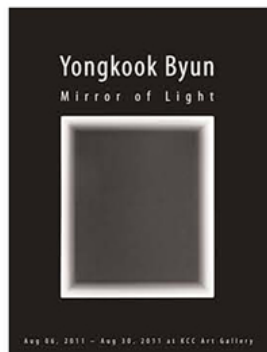
전 검사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시절 세계 유부즈멘협회(101) 등 국제회의 참석 때 통역없이 외교 활동도 펼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2006년 환갑을 넘은 나이에 시카고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만학열을 불태웠고 경희대 한림 국제대학원과 사이버 대학인 MD 커크 로스쿨에서 법학을 가르쳐 왔다.

이미 1979년 모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주 전 검사장은 “책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는 길”이라며 “공직을 통해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은 더 후배들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게 꿈”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 때 검사를 직접 맡으며 검사로서 유일하게 수사에 참여한 주 전 검사장은 검사 시절 원칙과 소신 이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해 후배들로부터 ‘주독(朱毒)’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주 전 검사장은 “검찰을 떠날 때 그 별명은 검찰 후배들에 물려졌고 ‘주독’이 아니라 ‘주덕(朱德)’으로 기억되도록 남은 인생을 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상화가 변용국 동문

시카고 문화회관에서 14번째 개인전

시카고 추상화가 변용국(사진) 동문이 지난 6일부터 30일까지 월링 문화회관에서 14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변용국 동문은 그동안 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미니멀 아트 의 극단적인 단순성과 규칙성을 동양상에 접목시킨 추상화를 그리며 중견작가로 주목을 받아 왔다. 시카고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용국 동문은 “양식은 서양적이지만 바탕은 동양적 사상에서 영향받았다. 세련되고 절제된 스타일로 동양적인 감성,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변 동문은 “어려 양식을 거쳐 미니멀 아트를 바탕으로 추상화를 그려온 15년 정도다. 동양의 선, 즉 금욕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절제된 측면이 내 감각과 맞는다”고 말했다.

바다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오다 최근 ‘바다, 빛의 거울’전을 개최하는 등 거울로 그 중심을 육했다.

변 동문은 “바다는 피안의 세계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계에서 자유로워진 열린 공간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넣어 선적인 것”이라며 “거울은 내 마음 속을 보면서 욕망을 떨쳐낸 보편적인 세계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변용국 동문은 모교 미대를 졸업한 뒤 플랫 인스티튜트와 NIU(Northern Illinois Uni.)에서 회화와 판화를 전공했다.

시카고 첫 전시회에 대해 “문화회관의 전시공간은 시카고 미술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다. 그 하드웨어를 지금은 채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적으로 고령화된 시카고 한인 동포 사회를 점차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감성이 있는 한인 우리 동포들이 미술인들의 전시회를 냉소적으로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이승준 동문

로봇월드컵 우승 소프트웨어 개발주역

지난 7월 터키 이스탄불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세계로봇 월드컵(로보컵) 대회에서 우승한 버지니아텍의 휴머노이드(Humanoid·인간형 로봇)에 사용된 축구용 소프트웨어의 인공지능 주도적 개발자는 이승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텍의 ‘챌리(CHALI)-2’는 각 팀 리더들이 투표로 뽑는 ‘베스트 휴머노이드’ 상까지 받았다. 버지니아텍은 앞서 열린 아동형 결승전에서 ‘다윈(DARWIN)-OP’ 로봇으로 일본 지바(千葉)공대의 ‘CIT 브레인스’를 8-0으로 대파한

것을 포함, 이 대회 3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이끈 사람은 데니스 홍(Dennis Hong) 버지니아텍 교수며 축구용 소프트웨어는 버지니아텍과 연합팀을 이룬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이 개발했다. 지도교수가 한국계 미국인 대니얼 리(Daniel Lee) 박사였다.

리 교수팀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개발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승준 동문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승준 동문은 처음에 미 언론에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생으

로 소개됐지만, 사실 모교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학생이다. 지난 2009년부터 방문 연구원(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 동문은 “다른 팀 로봇과 달리 걷는 도중 공을 찰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 주요한 것 같다”고 우승 비결을 밝혔다.

▶로보컵(RoboCup)=1997년 시작된 세계 로봇 축구 대회로 일본 다고야(名古屋)대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한국 KAIST가 주도해 창설된 FIRA(세계로봇 축구연맹) 로봇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로봇 축구계의 양대 산맥이다. 휴머노이드 외에 소형·중형(지름 50cm 이하) 로봇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피아니스트 김우리 동문

‘2011 캐츠킨 음악제 참가



피아니스트 김우리 동문이 한인 연주자 김혜미씨와 크리스토퍼 박 등과 함께 2011 캐츠킨 하이펙스 페스티벌(Catskill High Peaks Festival: Music with Altitude!)에 참가한다.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업스테이트 헌터의 독토로 아트

센터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솔로, 챔버 콘서트와 마스터클래스 등으로 꾸며진다.

김우리 동문은 모교 음대 졸업 후 인디애나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우리 동문은 현재 신시내티대 음대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중이다.

동문 동정

수상 · 지도 · 활동 · 전시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오하이오 최인갑 전 동창회장

20년 스키패트롤 봉사에 NSP 공로상

오하이오 지역 한인회장과 동창회장을 역임한 최인갑(공대 57) 동문은 20여년째 겨울철 스키 패트롤로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갑 전 회장은 이같은 봉사 활동으로 지난 4월에는 NSP(National Ski Patrol)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지역 'Korean's Sundaysnews'에 게재된 최 전 회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전제한 것이다.

'겨울철 스키장에 가면 슬로프 곳곳에서 붉은색 유니폼에 구급장치를 메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스키어의 안전을 위해 무보수로 순찰 활동을 하는 스키 패트롤이다. 팔링버스 서북쪽에 위치한 매디슨 마운틴 스키 리조트에 가면 유일한 한인 스키 패트롤을 만날 수 있다. 크지 않은 키지만 다부진 체격에 겹게 스웨터 기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에 활짝 웃으며 맞이해 준다면 그가 바로 최인갑(John Choi)씨다.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지난 4월 25일 NSP(National Ski Patrol)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을 매주 12시간 이상을 설악에서 봉사하며 보냈다. 스키어와 보더들의 안전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때론 부상자들을 원

장에서 응급처치하기도 하고 위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이송하는 등 흔하지는 않으나 그만큼 중요하다. NSP는 지난 20여년간을 이처럼 한결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에 대해 답례하듯 자원봉사 공로포장을 수여한 것이다.

매디슨 마운틴의 유일한 한인 스키 패트롤인 최인갑씨는 1958년 2월 처음 설악산 대청봉(해발 1708m)등에 등반해 성공한 Steimann 등산 클럽 7인의 멤버중 한사람으로 스키와 언덕은 이 때문이다.

또한 해빙대(해빙 84%) 국공무 시설 10명의 해빙 장교를 스키와 알프스 등반을 시켰으며 해빙대원을 이끌고 해발 1915m의 산악선, 1959년 나라 대청당시 해발 1952m의 한라산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등정한 기록을 가진 산악인이다.

이처럼 산과 스키의 인연이 각별했던 마리아 최인갑씨는 도미후 본격적으로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준비한 후에 드디어 한인으로는 단 한 명 뿐인 스키 패트롤이 됐다.

NSP를 통해 패트롤 라이드를 취득했고 OEC(Outdoor Emergency Program)과정을 이수했다. 정식 패트롤로서 자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매년 치러지는 12개 리전별 코스로 통과했다.

그는 운동을 하면서 사람이 섰는다는 말을 굳게 믿는다. 자신도 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고 다친 사람들을



최인갑 전 회장의 스키 패트롤 봉사활동 모습이다. <사진 Korean's Sundaysnews>

불 때마다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죽어 운동은 좋아하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봉사를 실천하게 된 것이 무척 뿌듯하다고 했다.

특히 '터치(TOUCH)'란 브랜드로 2009년 'B2C' 플랫폼 마케팅에 나섰다.

마침 세계 대전계 흐름은 온라인 쇼핑을 주도 이용한 패스트리전이 주도하고 있었다. 미국 18M-포에버 21-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다. 자바의 패스트리 전지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었다.

자바와 지레로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한국의 유명 여배우 박시연을 전속 모델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시켜 인지도를 높였다.

지난해 2월엔 명동에도 터치 직영점을 오픈했고 올해 3월엔 디퓨즈와 전작 제휴를 맺고 한국소매를 통해 대박을 얻었다. CJ E&M의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를 후원하며 터치가 패션 트렌드를 생생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런 인지도도를 바탕으로 터치는 한미대협(중동, 북동쪽)을 비롯해 신세계 갤러리나 디퓨즈까지 등에 업혀가는 등 하반기까지 10개 정도의 매장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주)창조원과 GEM 계열을 통해 아리온(Arion)이란 스킨 케어를 출시했다. 올해는 본격적인 토일 메이크업 제품 출시도 서두르고 있다.

주일업 교수

NCC 어덜트 오케스트라 지도



주일업 교수가 부녀자 파크의 뉴 캘리포니아 음악학교(학장 이해경, 이하 NCC)가 새로 창단하는 NCC 어덜트 오케스트라를 지도하게 됐다.

클래식 음악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된 이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사랑하는 성인이면 전공자, 비전공

자 구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동아리부서 입성 후 서울대 음악대, 연세대 음악대를 거쳐 소피아 콘서트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성대, 백석대 학교 수를 일한 주일업(사진) 교수가 이 오케스트라의 지도를 맡게 된 것이다.

NCC 이해경 학장은 "음악을 사랑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회 통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CC 어덜트 오케스트라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NCC(7342 Orangethorpe Ave. #C-101)에서 연습을 한다.

NC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www.nccmusic.org)에서 검색할 수 있다.

<문의 714-522-6789>

내과 전문의 심인보 동문

뉴저지 잉글우드 클리닉에 자정 개원



심 동문은 모교 의대 졸업후 보루클린 루터안스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뒤 보루클린에 개원, 그동안 뉴욕에서 주로 환자들을 진료했다. 현재 미국 심장내과학과 정회원, 내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심장질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 동문은 "병원을 찾은 한인 환자들을 그 동안 응급했던 것을 한국이여도 볼라고 싶었다. 병원을 들을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하다' 라는 표현을 할만하다"며 "심장이 불편하거나 병력이 있어 걱정하시는 한인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보혈을 취급하며, 메디케어에도 진료 가능하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리닉에서는 월·수·금 오전 9시~오후 1시, 화·목·금 오전 1시~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연락처는 뉴저지 201-569-1800, 뉴욕 718-836-0009

추상화가 박재은 동문

뉴저지 1&9 갤러리서 개관전

추상적 표현주의 화가로 알려진 박재은 동문의 개관전이 뉴저지 1&9 갤러리에서 열렸다.

'대부분 꽃들(Mostly Flowers)'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추상적인 꽃 그림들을 선보였다.

박재은 동문은 모교 미대와 뉴욕대화를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트와 뉴욕의 아트 스튜디오 등에서 동지에서 미술을 공부한 바 있다.



'Moein' 사장 노범식 동문

'메이드인자바'로 한국시장서 물풍



'모임(moein)'은 온라인 배선물을 시작으로 오프라인과 뷰티 레스토랑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모임이 늘고 있는 것은 LA 다우터슨 자바의 한인 메뉴바 자바를 모아 한국전통으로 상징적인 사업을 꾸리고 있다는 점이다. 'Made In Jobber'로 한 국 패션시장에서 물풍을 일으키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한국 패션계 진출을 꾀하는 자바 상인들에게 연구모델이 되고 있다.

동문 4명이 함께 시작한 모임은 설립 단계부터 분명한 사업 전개를 가지고 있었다.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MBA를 한 노범식 동문은 "온라인을 통한 감성 터치"에 주목했다.

MBA학부생 당시 한국에서 '아모레 퍼시픽'과 '티제 립크'에서 근무하며 사업 감각을 키운 노 동문은 2007년 LA 출장길에 우연히 '자바시장'을 알게 됐다.

자바시장을 접한 노 동문은 상권의 80%가 한인이고 의류 비아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게 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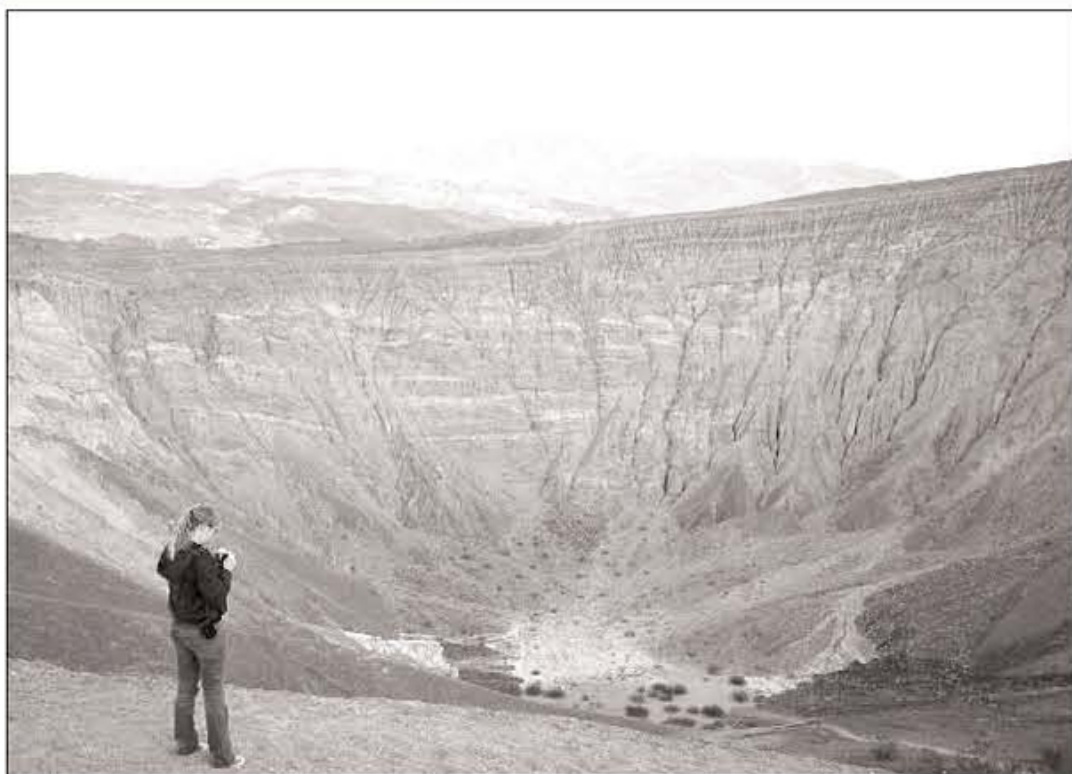
주류시장과 경쟁력이 충분하고 온라인을 통해 패션의 감성적 부분을 접목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모임들과 의견이 통한 노 동문은 2008년 12월이 되었고 모임인 모임(moein.net)을 오픈했다. 자바의 한인 메뉴바 250여 곳을 회원사로 등록시켰다.

사업 가능성을 확인한 노 동문은 미국산 중저가 브랜드의 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자바 상인을 설

관악세대/Acro 광장

탐방기·투병기



“은통 젓빛 분화구 속에서 생명을 보다”

개미의 스위트 홈 ‘우비히비’

박봉현(사대 79)

우비히비(Ubehebe).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부의 데스 밸리에 있는 지름 800미터, 깊이 153미터의 거대한 분화구다. 인디언들이 분화구가 하도 크고 깊어 페어 큰 바구니 또는 큰 접시를 뜻하는 ‘우비히비’로 이름 지었다.

우비히비는 4개의 영어 모음을 3개의 자음에 어떻게 붙여 읽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우베베베’ ‘우베헤비’ ‘유비히비’...

분화구로 가는 길목에서 입장료를 받는 택시가 성성한 택인 안내원이 자신있게 제시한 답은 ‘우비히비’다. 인디언에게 제확인한 게 아니라 점잖아긴 하지만, 정답이야 어떻든 우비히비는 인디언들에겐 분명히 ‘영험한 큰 바구니’였을 게다. 오랜 세월 간직했던 삶터들 백인들의 총칼에 무참히 짓밟힌 인디언들의 아픔을 헤아리려는 예의에서 정확한 발음을 배우려 했던 것이다.

수천 년 전 마그마를 뿜어냈을 이 화산은 당시 가공할 파괴력으로 산 자체가 제 모습을 잃고 움푹 들어간 거대한 구덩이가 돼버렸다. 우비히비 내벽은 부분적으로 시커먼 색을 띠어 당시 자연의 격렬한 용트림을 증명한다.

마그마와 지하수가 만나 증기를 분출하면서 폭발해 인근 약 1천500만 제곱미터를 화산재로 뒤덮었다. 국제 축구연맹의 국제규격 축구장 넓이가 7천140 제곱미터이니 빈듯한 축구장 2천여 개를 연결한 지역이 화산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분화구 위에 서면 한 번 내려가 보고 싶은 충동이 솟는다. 내려가기는 아주 쉽다. 가파르지만 경사면이 온통 조약돌 크기만한 검은 돌로 돼 있어 미끄럼을 타듯 속도를 낼 수 있다. 눈 덮인 산에서 스노보드를 타

는 기분이다.

문제는 올라갈 때다. 족히 50도는 되는 급경사의 검은 돌들은 이제 ‘반가운 아군’이 아니라 ‘몹쓸 적’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다”며 두 발에만 의지하다가 중턱쯤에서 그 절난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 하도 미끄러워 두 손까지 총동원한다.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어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다. 그리고 오르는 중간마다 여러 번 네발짐승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쉬게 된다.

물론 분화구 밑에서부터 위까지 비교적 편안히 걷는 길이 있기는 하다. 구불구불하게 만든 완행 흙길이다. 그러나 두 발만 써도 충분히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이 길을 택하면 우비히비의 진가를 맛볼 수 없다.

우리에선 지독히 척박한 우비히비가 다른 평가자에게선 아주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우비히비에는 물이 없어 생명의 터전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켜켜이 깔린 바닥을 잘못 디디면 끝 모를 땅 속으로 함몰될 것 같아 당장 빠져나가고 싶어진다.

‘나락’에서 있다는 절박함에 휩싸인다. 분화구 바닥에서 주위를 빙그레 올려다보면 엉악없이 ‘창살없는 감방’이다. 그런데 거북이 등처럼 켜켜이 깔리고 매마른 땅에서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인다. 보통 개미보다 몸집이 크고 살도 통통하다. 갈라진 흙으로 들락날락한다. 내겐 탈출해야 할 이곳이 개미에겐 들도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우비히비는 한 생명에는 절망의 황무지인데, 다른 생명에게는 감사할 ‘옥토’다. 개미의 열라대왕인 개미핥기가 넘볼만한 곳도 아니니 개미에겐 자자손손 지킬 수 있는 보금자리다.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 실존

하는 모든 것엔 의미가 있다. 숨을 쉬며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것은 가치 대가가 없다. 반면, 숨 쉬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민둥산이나 돌덩어리는 대개 무가치 판정을 받는다.

생명이 없는 것엔 언뜻 정이 가지 않고 감정이입이 어려우니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그렇다고 “있어도 그만”이라며 판단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면 이들의 가치를 함께 나눌 기회를 바로 차버리는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믿음이라면 돌과 흙에서도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우비히비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빠져나가야 할 고통스러운 ‘코도소 독방’이기도 하고, 온몸으로 지켜내야 할 ‘홈 스위트 홈’이기도 하다. 이처럼 존재에 내재하는 양면성은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마음을 너그러게 한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면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바르게 컸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버거웠지만, 이 가족은 서로 아꼈다.

교과생인 자녀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얼마 안 되는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 어머니 생일 선물로 머리핀과 푸근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사드렸다. 이들이 용돈으로 받은 돈은 한 달에 만 원. 용돈이라기보다 풍돈이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던 어머니는 자식들이 교생을 교생으로 여기지 않는 심성을 갖게 된 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무척 가난했지만 슬픔과 절망에 포위되지 않았다. 이 가정은 어머니와 자녀에겐 기쁨의 샘터였다.

남에겐 ‘기구한 팔자’로 여겨져도 내겐 얼마든지 ‘감사할 인생’일 수 있다.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홍현표(외교 82)

항암치료를 받을 때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 2박3일간 주사바늘을 꽂고 지냈습니다. 항암제의 독성(毒性)이 워낙 강해 입 안이 헐고, 구역질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항암제와 수액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 소변 횟수가 늘어나 한밤중에도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가뜰이나 불안한 마음에 힘은 없고 머리는 멍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편치 않고 책을 봐도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창 밖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지만 죽음, 이별 같은 부정적인 단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버려야 하는데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걷기였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동에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주로 모여 있었는데, 아침 6시만 되면 항암제나 수액 봉투를 바꿔 달린 걸개에 걸고 복도를 걷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머리를 탁탁 댄 50대 남자는 식사 시간 전후로 1시간씩 부인과 함께 씩씩하게 병동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의 밝은 표정을 보고 자극을 받아 저도 왕복 거리가 150m 남짓한 복도를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분이 열린 다른 병실 분위기를 훑쳐 보기도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환자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체력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잠남 털어내기의 수단이었습니. 병동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고, 발걸음 수를 세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걷는 속도를 높이다 보면 시간이 더 잘 갔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 점차 걷는 일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잠만금 저를 괴롭힌 것은 병원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항암제로 위장이 뒤집어진 탓인지, 식사 시간의 팔 냄새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몸에서 빠져나오는 악 냄새로 헛구역질을 할 때가 허다했습니다. 구역질이 나서 수저를 내려놓을 때면 옆 침대의 보호자는 “잘 먹어야 약 효과가 높는데, 억지로라도 먹으세요”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밤 한 술가락 뜨지 못한 채 슬그머니 병실을 빠져나와 복도

를 걸곤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퇴원하면 기분이 날아갈 듯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병원 밖으로 나왔다는 것일 뿐인데, 몸과 마음이 그렇게 다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여전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럽기는 했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르곤 했습니다. 병원만 아니라면 몇 시간이라도 걸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뒤 또 입원해서 ‘악몽 같은 2박3일’을 보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더 이상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면 정말 즐겁게 걷기 운동을 하겠다”는 맘을 먹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반의 휴직 기간 중에는 그대로 됐습니.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아침식사 후엔 집 청소를 마치고 왕복 1시간 반쯤 걸리는 공원까지 무지런히 오갔습니.

새 소리 들리는 숲 속에서 스트레칭과 명상, 태극권을 하는 시간도 삼켰습니다. 1시간 이내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걷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써도 제 몸을 챙길 시간이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이상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고, 1주일에 두세 번은 헬스클럽에서 근육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갈수록 빼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러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평계거리를 찾으면 수없이 많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착실히 실천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트레칭은 1분만 제대로 해도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매일 1-2시간에 한 번씩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스트레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2-3일은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연을 덜 마시면서 한적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도 있고, 정계천을 따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등과 온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감돌면 엔도르핀이 팍팍 돕니다.

걷는 동안 잡념을 하나둘씩 털어낼 수 있는 것도 걷기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왕이면 숲과 산에서 걷고 싶지만, 또 다른 평계거리가 될까 봐 도심 걷기에 제미를 붙여볼까 합니다.

(*위 글은 조선일보 기자인 홍현표 동문이 신문에 연재하는 본인의 투병기를 전제한 것입니다.)

신앙은 신의 소리를 듣고 깨우치는 것

내 생을 굽이치게 만든 사건과 깨달음

곽건웅(사회 78)

어느 누구의 삶도 인위적으로 만든 고육도로나 운하처럼 일직선으로 곧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사건들이 한 사람의 삶을 크고 작게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굴이친다'는 말을 벨이유 없이 좋아하는데 이런 사건과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을 굽이치게 만들지요. 사람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크게는 가치관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고, 작게는 습관이 바뀌는 방식이나 버릇 같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곧 이런 일들이 생애에 있어서 크고 작은 전환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 50년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전환점이 된 사람들과 사건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오늘날은 그 중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말하러 합니다.

20여 년 전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졸업 후 곧바로 신학교에 갔었는데 그 학교가 한국에서 손꼽히는 보수적 신학교였습니다. 그때 신앙은 기도원으로 산 기도, 철야 기도 다니면서 내구루리 붙잡고 '내가 이나 나 내가 이나 보자...'는 식으로 '주여, 주여' 외치며 철야 기도하던 시절이었으므로 그 신학교가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 사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이성의 동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 분위기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억압적인 분위기였지요. 게다가 애기하고 가르치는 '신학'이란 것이 학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교리학' 또는 '교리주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을 휴학하고 3년 동안 혼자서 도서관에서 신학 책을 읽는 데 몰두했습니다.

과연 신학이란 학문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제 생애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였습니다. 거의 그 공부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나니 이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가 1985년 일입니다. 한신에 머물던 3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스승님과 벗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안병무 선생님과 홍근수 목사님에게서 받은 감화와 영향을 말할 수 없이 큼니다.

그런데 그 시절 부 분과 만남과는 별도로 제 신앙과 신학사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

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깨달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특정한 사람이나 책에서 직접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복상하면서, 그리고 그 동안 읽은 여러 좋은 책들에서 영감을 받아 얻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갖고 있던 의문은 '구약성서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적혀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을까? 이 하나님은 정말 홍해를 갈랐고 이삭라엘더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바보가 말을 안 들으면 바보의 장자란 죽일 일이지(그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왜 이집트 땅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의 장자를 죽여야 했을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 일들이 야훼 신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났다면 과연 나는 이런 신을 믿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경에 기록해 있는 기록들이 정말 사실이었을까?'라는 질문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그런 것 아무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지금 다시 일어났다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제 신앙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제 신학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관심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였을까? 정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을까?

다만 소리가 있었을 뿐이다!

이런 질문들로 괴로워할 때 제 영혼을 파고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호렐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있던 날, 야훼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백성은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나는 바를 따라 나를 경외하는 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산기슭에 나와 서자 그 산은 하늘의 한가운데까지 치솟는 길에 휩싸였다. 그리고 웅장한 산봉우리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지 아무런 모습도 보

지 못했다. 다만 소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 때 너희에게 선포하신 것은 당신의 계약이었다. 그것은 곧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열 조목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지킬 규정과 법규를 너희에게 가르쳐주라고 그 때 야훼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야훼께서 호렐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남자의 모습인 여자의 모습인 일체 어떤 모습을 본대 세진 우상을 모시어 좇을 짓을 이미 없도록 하여라..... (10-16절)

왜 이 말씀에 쫓겼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좌우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이 말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는 심경적 중 돌째 계명을 준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그 날 아무 모습도 보지 못했으니 그러므로(therefore)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형상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신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나 당시 최고 문명을 이었던 사람들은 예외없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상을 매일 닦고 광내고 화려하게 입고 옷을 입고 바쳤지만 그들도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상이 곧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신이 신상 안에 현존하고 있다고 믿긴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 눈으로 신을 보고 본대로 신상을 만든 것은 아니었으므로 신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주목한 점은, 그들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신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만 들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신은 어떤 형태로 대신 된 채로 계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그들이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말씀하리라고 믿는다. 그것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목소리 뒤로 모습을 감추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이 구약성서의 야훼 하나님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 영혼을 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저는 <예수는 없다>를 쓴 오강남 교수님을 얼마 전 만났습니다. 오 교수님은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평생 비교종교학을 가르치고 은퇴한 분으로 몇 년 전 쓴 <예수는 없다>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최근 <종교, 신상을 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종교·사상을 대표하는 60명의 삶과 사상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 교수님은 이 책에서 모든 종교에는 표준과 심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층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심층은 그 아래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종교의 다름을 막론하고 표층에 머물러 있을 뿐 심층이 이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종교의 심층에는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을 오 교수님의 심층종교학과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3천여 년 전 인간 최고 문명권의 사람들이 모두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길 때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다만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종교는 가히 '혁명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신은 가히 혁명적인 신이었고요. 그리면 이 '목소리' 또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발은 그저 잠시 허공을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신상 안에 현존하는 신이 아니라 목소리에 현존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존재방식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닦고 광내고 화려하게 입고 절친 음식물 먹이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닦고 먹고 섬기는 방식은 야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현존하는 유일한 방식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위적으로 목소리를 듣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의 목소리라는 것이 그리 분명하지도 명

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어? 영어? 한국어?

듣는 사람이 따라 다른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성서에 기록해 있는 모든 말들이 곧 하나님의 목소리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도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해석해내는 것이 곧 신앙이고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때렸을 때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중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기울여 반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네 신앙이고 삶이며 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성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아듣고 해석하고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였든지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석이었던지는 읽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만 좌우간 구약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로부터 3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구약성서를 읽고 있는 저의 해석은 물론 그들의 해석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해석이었고 우리가 반드시 그 해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식별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들입니다. 해방·자유·평등·평화, 더불어 살·공동체·책임·자비·공존·사랑....

저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 영혼이 어떻게 평겨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208호 2011년 8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15

www.ciua.com

국제적인 교육, 세계적인 성공! 36년 전통의 C.I.U.

학장 박문규(분리대 68)

**정부인가 정규 4년제 대학(원)
믿을 수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
파격적인 장학제도가 있는 CIU**

글로벌 시대, 국제적인 성공을 이끄는 C.I.U!
밝은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가르침이 있는 곳,
이 모든 것이 36년 전통의 C.I.U에 있습니다

36년전통의 C.I.U.!! 밝은 내일의 성공이 보입니다!



언어벽에 의한 외국인 학생등록 가능

한국인 카운슬러가 상담해 드립니다.
C.I.U.는 언어벽에 의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어려진 학교입니다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저렴한 학비

성공적인 미국 유학의 시작, C.I.U!
C.I.U.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저렴한 학비와
풍부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

LA 시장이 추천할 만큼 전통과 실력이 갖추어진 믿을만한 학교, C.I.U!
최고의 교수진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국제적 성공을 도와 드립니다



다인종의 학생구성으로 더욱 빠른 영어학습효과

C.I.U.에는 50여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영어 훈련이 효과적일 뿐 아니라 미래의
세계 지도자와 사귄 수 있습니다



시청각교육/도서관/컴퓨터 교육실 등 최첨단 시설

광적인 학습분위기를 원하시나요? C.I.U.는 최첨단 시설 소유 빌딩에
교육에 필요한 최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부 과정 (학사/석사)

BS in Business Management
MS in International Business

경영학 및 국제경영학부 학사/석사과정
TOEFL 고득점자 장학금 혜택

영어연수원

영어도 정규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졸업반 (ESJ) 오전/오후/저녁반
TOEFL (한국어영어) 오전/오후/저녁반

등록문의
입학상담

213.381.3710 / 213.381.3719
3130 Wilshire Blvd. L.A., CA 90010
(Wilshire+Shatto) e-mail: ciu@aol.com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대학원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지역 소식

남가주



남가주 동창회

Hollywood Bowl/서 동문 가족의 밤

지난 7월 마지막 주말인 30일, Hollywood의 Highland Ave.의 행사장으로 동문가족들은 속속 모여들었다.

동문뿐 아니라 Hollywood Bowl 공연 감상을 위해 라인종들도 엄청 모이는 곳이라 주차장정이 일어났으나 워낙 넓은 주차장 덕분에 걱정은 가우었다. 다만 주차장까지 따라와 대당 16달러 Cash정수에 영수증도 주지 않아 동문들 한 사람은 “저놈들 순백 평당치도 모르겠네” 하고 푸념했다. 어쨌거나 우리 일은 아니니...

한종칠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이 행사를 위해 올해도 많은 동문들의 협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가정대 안혜진 동창회장과 행사 진행을 맡은 열인숙 동문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안혜진 회장과 열인숙 동문은 “도내이선 등 협력해준 동문들과 행사전행을 도와준 관악 연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

한종칠(가운데) 남가주 총동창회장이 김창진(왼쪽) 총무국장에 의해 도내이선 동문 이름과 내역이 호명되는 가운데 박수를치고 있다.



했다.

선디에이코에서 찾다는 한 동문은 “1년에 한번씩 이런 기회가 아니면 동문들을 만나기 어려울 뿐더러 Hollywood Bowl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매년 참석해오고 있다”고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연출연 인사들. 왼쪽부터 Florence Henderson(Special guest), Michael Feinstein(Host, Vocals and Piano), Wayne Brady (Special Guest)



Hollywood Bowl 동문가족의 밤 주역들

올해 9회째인 이 동문가족 행사는 지금까지 가정대학 동창회 주관으로 시행돼오고 있다. 윤승재(60)동문은 “제열혜진 회장이 처음 발의해 제1회는 각 동문들이 각각 따로 음식을 장만해오기로 했는데 무려 1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 다음해부터 이를 확대하

게 했다”고 말했다. 이 행사가 가지는 열렬한 열매들은 각 단과대학 동창회 동문들이 이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각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오는 일이 번거로운 만큼 주최측에서 도내이선을 받아 음식을 모두 준비하고 Hol-

lywood Bowl 일장표를 포함한 티켓을 판매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300여명이 넘는 동문 가족들의 카테일과 음식을 모두 준비한다는 것은 여간 큰 일이었다.

이에 대해 김경진(59)동문은 “올해 안혜진 회장이 자택에서 새벽 3시까지 음식을 만들고 오전 7시부터 다시 행사장을 준비해서 너무 고생을 시켰다”고 미안해했다. 오성자(59)동문은 “여러 대학에서 우리 동창회와 비슷한 행사를 하는 데 이만큼 음식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준 높게 하는 곳이 없다”고 평했다.

열인숙 동문은 “티켓을 예매하고는 종종 뒤늦게 취소하는 동문들이 있어 이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역 소식

뉴욕



뉴욕 동창회

모교 재학생들이 여흥시간 마련

뉴욕 동창회가 '글로벌 밸런트 프로그램' 차 미국에 온 모교 재학생 후배 동문들을 초대하는 만남의 장을 제공했다.

'글로벌 밸런트 프로그램'은 모교에서 파견된 졸업생 알트 재학생들이 MS·BOA·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대기업에 직접 방한해 자신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인턴십 기회를 얻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모교 경력개발센터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 참가 학생들을 선발해 이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발된 10명의 이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8월 9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지국을 방문한 데 이어 댕크 오브 아메리카·시티뱅크·골드만삭스·모건

스탠리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방문했다. 그리고는 각 기업에 찾아가 고위 간부와 인사 담당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기업 관련 분석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8월 9일까지 보스턴 기업들을 찾았던 학생들은 10일~12일까지는 뉴욕의 기업을 두루 방문했다.

10일에는 세계 최대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댕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발표했다.

전영철(경제학) 인솔교수는 "20여년 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와는 글로벌 환경이 달라졌고 한국의 위상도 올라갔다. 학생들이 이러한 장점을



살려 자신들의 우수성을 기업에 직접 알리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모교 재학생들은 미국에 와서도 발표 준비 등으로 거의 밤을 새며 힘든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

'글로벌 밸런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교 동문들이 뉴욕에서 한 장면 '힐락' 한 뒤 뉴욕 동창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여흥을 즐기고 있다

댕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이수진(경제학 09) 동문은 "주류사회에서 담당하게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에 크게 자극을 받았다. 실력을 더 키워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

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방문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골든클럽 Walkill에서 골프대회

뉴욕지역 골든 클럽(회장 이준형 공대48)이 지난 8월 10일 Walkill에서 골프대회를 실시했다.

한두차례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무사히 행사를 끝내고, Olive Garden에서 식사를 가졌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Medalist= 김중석(85타) ▶1등= 김중석(7 under

handi 20) ▶2등= 임정규(1 under handi 18) ▶3등= 홍종만(1 under handi 22) ▶4등= 이흥민(1 over handi 24) ▶Close to the pin <남성부>= 이용재(11th Hole) 김중석(15th Hole) <여성부>= Close to Target play, 정순희(Play 20 for target 16)

<홍종만 공대 84>



뉴욕 관악연대

롱아일랜드 와이너리 여행 다녀와

뉴욕 동창회 관악연대가 지난 7월 23일 토요일 롱아일랜드로 와이너리 여행 행사를 다녀왔다.

이 날 6명의 동문과 2명의 게스트가 Jason's Vineyard에 와

이너리 여행을 함께 했다. 함께 한 이들은 박성우(기계공학 99)·김효범(미대 99)·이경민(미대 01)·조용범(통계 01)·이귀선(미대 02)·주진호(미대 04), 그리고 이경민 동



문의 동생과 나의 친구 등이었다.

와이너리에서 와인 테이스팅 및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

날씨가 살짝 더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시원한 야외 농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가한 동문들은 모두들 만족한 하루였다고 평했다.

<조용범 자연과학 01>

지역 소식

밴쿠버 · 북가주



밴쿠버 동창회

경기 산영과 골프대의 개최

밴쿠버 동창회가 지난 7월 경기 산영과 골프대회를 가졌다. 산영은 23일 Cypress provincial park 내에 있는 Howe-Sound-Crest 코스로 다녀왔다. Sea-to-sky highway와 나란히 놓인 능선지에서 Lions bay 등 바다를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길이다.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다소 가파르나 외길을 왕복하는 산행으로 뛰어난 절경이 장정이다. 산행 전의 일기 예보와 달리, 좋은 날씨로 7월 한 여름에도 아랑 정상에 눈이 덮여있었

지만, 함께 즐거운 산행을 하고, 안전하게 하산했다. 참석자는 홍국남(51)동문부부(65)동문, 문장영(70)동문부부, 김대원(75)동문, 남금영(77)동문부부, 손주희(78)동문, 문봉제(80)동문가죽, 오여운(84)동문가죽, 전성훈(82)동문등이다. <문봉제> 한편 동창회는 36명이 골프대회를 열었는데 골프대의 입장자들은 9월 장학기금마련 음악회 전초금을 회수해주었다. 대회 입장자는 다음과 같다.



▶그로스 일반부 우승= 이명규
▶그로스 시니어 우승= 조관기
▶네트 우승= 오장남 ▶네트 준우승= 문봉제 동문가죽 ▶장타상 시니어부= 박학일 ▶장타

상 일반부= 임홍렬 ▶장타상 여자부= 김원석 동문가죽 ▶근타상= 김명준 동문가죽 ▶어른상= 김지규 ▶말린상= 최진호 ▶다목적= 오영은 동문가죽

대과상= 남금영 동문가죽 ▶퍼팅상= 이창명 ▶퍼팅상= 오우홍 동문가죽 ▶의상상(남)= 진성훈 (여)= 임신영 동문가죽 < 남금영>



북가주 동창회

Oak Meadow Park에서 आयुर्वि

북가주 총동창회(회장 이장우 문리대 72)가 지난 8월 6일 Los Gatos 소재 Oak Meadow

Park 에서 동문과 가족들이 총 69명이 참가한 가운데 आयुर्वि를 가졌다.

동창회는 좀 더 Family-Friendly한 आयुर्वि가 되도록 BBQ 음식과 음료, 가족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상품을 준비했다. 공원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및 회전목마와 Choo-Choo-train은 물론 공원내 Vasana Lake County Park에서 페달보트나 카누를 타며 물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동창회는 참가비 없이 모든 음식과 음료, 그리고 상품을 동문회에서 모두 제공했다.

야유र्वि가 끝난 뒤에는 임승태 동문(전 회장, 문리대 66)이 주최한 오페라 캘리포니아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에 이장우 회장과 동문들이 참여해 공연을 관람했다. <사진= 한민섭, 글= 임승태>

여행기

소련붕괴 직후 러시아 방문기 <2>

“내가 자본주라도 이런 곳엔 투자하지 않겠다!”

김일훈(의대 51)
동창회보 논설위원

허수룩한 러시아

넓고 크다 뿐이지, 어딘지 모르게 허수룩하고 처량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와 피트스 버그에는 제면을 갖춘 세계적 시도 옛날의 열화포로인 포클을 간직하고 있었다.

공제본 철한 것으로 의외로운 금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곳이었다.

그러나 유복하다는 건틀도 구서 구역이 넓고 순상된 곳이었으며 면적이 넓어서 수리할 수 없다고 한다.

호텔이나 식당 서비스도 거의 나쁘졌다.

공산당 시절 “실업자가 없지 않을 일도 없다(No Unemployment, No Hunger)”는 현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월급 100달러 짜리 수입이 아니라 그 돈을 받는다는 일이나 서비스 받을 일도 또 낸 수 있었다.

그런데도 러시아인은 1970년대 미국처럼 잘 사는 사람의 수를 온다고 한다.

크레믈린 근처의 GUM이라는 대형 백화점엔 서방 고급상품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데 신통감부름이 그 고대이라고 한다.

“중부들의 생활비가 약 500달러 정도인 데도 월급 100달러로 살아가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1990년대) 러시아의 마스터리 첫번째 속한다”고 안내자는 말한다.

즉 “나머지 400달러는 Moonlight(우월)·Mooshinning(일주)·Black-Market ing(암시장거래)·Bribery(수뢰) 등의 부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안내자는 자학적인 어조로 설명한다.

국제화와 자본주의 물결을 타고 있는 신진 한국의 모습도 대도시에서 볼 수 있다.

대우(Daewoo) 삼성(Samsung)의 큰 간판이 중심지에 크게 눈에 띈다.

모스크바 강을 크루즈 하도 보면 일한 한 척의 선박이 호텔로 개조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호텔 건물에 ‘Silla’로 적혀 있어 한국(신라)임을 알게 된다.

별소크바 봉변은 관청제 중에 한국인을 자주 만날 수 있어 못됐다.

러시아에 골프장이 없다는 것은 가히 알아보았지만 웅장시시 모스크바 강에 하나 밖에 없었으며 그것도 일기관계로 연중 3개월만 문을 여는 적자 기업이었다.

같은 볼라도 지난 1972년 국내 대동맹이 방문했을 때 그는 배를 타고 가는 일도 없었었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도대체는 외국 자본이 반장하고, 외국 생산자들이 봉변하는 골프장들이 많은데 러시아인은 예외다.

그만큼 외국 기업의 진출이 늦고 장사가 잘 안된다는 말도 된다.

“내가 자본주라도 이곳엔 투자하지 않겠다”고 열애 있는 미국인 노교수에게 말했다면 “사실이다!”고 응답한다.

아무리 땅이 넓고 인적이 허수룩해도 오조친일이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적의 성장이 아니냐.

“No Work”란 전통을 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들은 무슨 재주로 부러비만단 말인가.

그러고 “크-세이션(서양인종)이라고”, “대-크이션” 하는 하물같은 자본심만 살아 있는

그들이나 말이다.

러시아인은 과거 몇 백년간 장사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간 교역이란 것도 민간자원에서 해본 적이 없고 또 국가에서도 교역보다는 “다육이” 정신으로 약육강식으로 주변 약소민족이나 국가에서 약탈하는 일이 나뉘었다.

이렇듯 사술도 없고 장사 경험도 없는 그들이 보편 조속한 경제부흥을 기대하리라 ‘나무에 서서 팔고기를 잡는 정도’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라리 공산당 시절의 통제경제에 함몰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리저리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으니 말이다.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경제개발이 성공적인 것은, 중국인은 원래 장사꾼이 뛰어나서 대량 경제적인 하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바탕 위에 시장경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사실을 읽은 적이 있다.

피터스버그의 주력품을 통로로 돌려 팔기 위해 구경했다.

모스크바에 스카기 삼진 것이 있다는 건물을 돌아볼 때 너무나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거리라는 걸 알고 나왔다.

모기가 설 때일 것이다. 외국인이 출입하는 도시인데도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일이 없다.

도대체 초겨울부터 장사지키는 것은 그들은 바깥 외국에서 온 전채 관성이 있는 듯 무뎠을 것이다. 그만큼 맑거리의 오라라는 것도 없고, 밤새의 체온이 떨어지는 말도 되었다.

서울은 물론 북경이나 미국 대도시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적을 찾아 벌떼처럼 모여들고 봉변인데, 러시아 도시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다.

좋은 곳 찾아 한 톨이라도 더 벌겠다는 의욕이 없는 듯하다.

러시아에는 고추도 없다는 것이 따로 없고 국가의 간선도로가 미국 시골길보다 못하다.

모스크바에서 서방으로 향하는 길이나 피터스버그로 가는 길은 나쁜 오름가는 간선도로인데도 모두가 나쁜길이 아닌 차선 부위(Shoulder)이라는 것도 있다.

그나마 포장도로인 것만 해도 대도시지만 보수공사가 안되어 차가 하해 혼잡하기 마련이다.

그들의 주된 교통편은 기차인 모양이고 자가용이나 버스 교통편은 극히 드문지라 장거리 도로 이용은 주로 화물차이고, 이것은 옛것에는 군용차였을 것이다.

러시아 고속도로도 교통차이가 나쁘다 하면 바쁘기 하는 “목사”가 많다. 미국의 교통차이 즉 차제송(Fender Bender)과는 차이가 많다. 모스크바에서 플란트 가는 길에 지친 대형차들을 줄이나 목

등문 시 감상

바람아 바람아
정처하지도 50)
«가-판»

바람아 바람아 너는 무엇이었기에
너의 가는 정도도 바리리
나 속도 그보다도 잘도 만났니

바람아 바람아 화내라 마
너의 가는 정도도 바리리
너의 정된 뜻도 나무도 밀놓까지
지 잘리리라

바람아 바람아 성 내치마
너의 노도에 바다도 뒤집히고

속지까지 바다 되어 모두 모두
끌려 갔다

바람아 너는 나를 사랑해
아름다운 저녁 풍광에서 있는 바람
너 없이 방대한 외로운 손 잡지

정원에서 부는 바람 화난 소리도
나도 없고
마사로는 유월의 아침 햇살도
고사고루 비리니

나무마다 줄기이 춤을 추누나
바람이 또 모습 보이지 않아요
떨리는 연애나 내기 있는 것을
장문을 통해 보고 싶노라

정도이며 일한차량 풍광은 예
사로 하루가 걸린다니

우리 관청자는 여러 군데서 종
본이 있는 모습을 지를해서
공과기도 있다. 심지어는 불
수요지지만 명목은 황제제, 과
별금 등등이려 한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의 후생
비가 되는 모양이다.

플란트 입구에 들어서면 반대
방향이 러시아에 입국하고
장사지를 치고 기다리는 수백
개의 고객을 자동차가 눈에 뜨인다.

시방에서 폐쇄화된 차나
흔한 러시아에 끌고 가니
그것이 손질해서 팔아걸린다
는 것이었다.

플란트 입구에 들어선 고급차
들이 바리리 같은 속도 푸르름
통해 바리리도 땀을 흘리는
뉴스를 붙은 바리리. 기계
가치를 잃어 너무나 많았다.

“안료를 중국자들이 내놓았
여기까지 없다”고 안내자는 말
한다. 하지만 때는 여자가 이
러한 것을 팔고도 예절하는 모
양은 예절되었다.

길가에 작은 약단을 마련한
예에 모인 구걸꾼들, 가난한
예술인의 술값떨어질 지도 모
른다.

모스크바에서 머물렀던 호
텔은 “누가 주인인가”라고
물어보니 “지방 정부 수석 50
여 민간자 수석 50”이라며 여
가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모두
가 주주자이니 그들의 인적이
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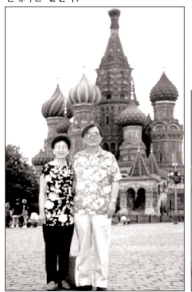
종업원들이 주인이라 사물을
지었다. 경찰당 시방부터
시방이었는데는 ‘연출(演, 리
아블로 Blat)’이 살아나가는
데 필수 요건인 걸 러시아 문
제 전문가의 글에서 읽은 것이
었다.

러시아의 지배계급은 공산당
시절이나 지금이나 상부층도
잘 살아나간다는 말이다. 그리고
상부층은 바로 북한 특권
계급의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

호텔에 숙박한 데 외국인도 여
권을 호텔에 맡기고 대신 호텔
에서 돈을 벌아 귀환한다.

폐쇄정책으로 그들은 호텔
을 방문을 요구한다. 이것도
공산당 시절의 유물일 것이다.

호텔입구에서 경비원 여러 명
지켜서 출입권을 체크하니
인전하라는 그림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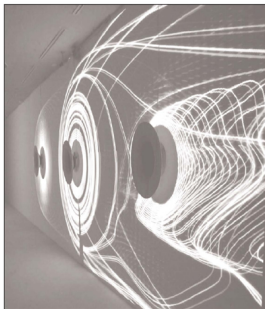
←크레믈린 궁전 앞
에서 아들과 함께.

러시아에서는 지금
도 존경받고 있는 레
닌의 동상이다.



기고

칼럼·수필·시



백남준의 천재적 예술성



이연행(문리대 68)

우리 한국이 낡은 세계 최초의 비디오 예술가이며 전위 음악가, 행위 예술가, 사상가인 백남준 선생(1932-2006)이 올해로 탄생 79 주년을 맞았다.

그의 일흔일 부인 구보라 시계(73살)가 최근에 한에서 그의 남편을 회고하는 <나의 사랑, 백남준>이라는 책을 냈다.

올해에는 뉴욕에서 그 책의 영어판이 나와서, 그의 위대한 예술과 생애를 알려 주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백남준 아트 센터'에서는 그의 대표작 20여점과 그의 영향을 받은 후배 작가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 30여점이 같이 설치되고, 미로처럼 얽히어 전시되어, 시대적 앞서 간 이 대가의 사조와 장르를 뛰어 넘은 예술혼을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었다.

<미디어 스케치>, 백남준의 절음으로>라는 제목의 이 특별 전에는 그의 대표작 <오음곡 212>, <최초의 휴대용 TV>, <C>, <복산>, <TV 정원> 등과 예이제, 작가 그룹 조다, 최승훈-박선민, 김기철-김신일 등 18명의 작품이 선보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그의 생애와 예술을 다시 한 번 살펴 보고자 한다.

그는 1932년 서울에서 당시 최 고 제법이었던 아버지의 박수로 태어나고, 6.25 전쟁 때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 가서 중경에 정착했다.

그리고 동경 대학에서 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 졸업 논문은 레르코프 연기로 했다. 그 뒤 도쿄로 가서 뮌헨 대학에서 다시 음악학과 미술사를 공부하고, 몇 해 작곡을 시작했다.

그는 1958년 다름슈타트에서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 존 케이지를 만났다.

그 때부터 그는 이미 독일에서 전자 음악과 실험적인 퍼포먼스 등을 공연했으며, 특히 퍼이아를 파괴하고 관공자들의 옷을 지르고 그들의 머리를 상투로 감기는 등 격렬한 행동주의 양식을 전개 했다.

1961년에는 플루티스트 운동(‘호름’이라는 뜻의 무장투쟁)의 리더가 되었고, 플루티스트의 리더가 되었고, 플루티스트의 리더가 되었고, 플루티스트의 리더가 되었다.

그 후부터 계속해서 그의 창작적인 퍼포먼스와 전시회, 음악회 그리고 비디오, 전을 세계 여러

나무를 심는 마음



방준제(의대 63)
Parkside Medical Office NY

지난 봄 식독일을 전후하여 한국에 다녀왔다.

작년에 타계하신 모친의 1주기 제사 소식이 첫번째에 유언했지만 반세기 전 친필 1968년 모교 서울대 의대 교정에 심어 둔 벚꽃나무가 급성하게 되었다.

과거 축구 교관김기차 발한했던 일본 와세다 대학 의대생들의 황송원이 있었을 때 귀국하던 벚꽃 묘목을 100그루 정도 보내달랐더니 그들은 흔쾌히 수락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 묘목들을 신숙 병동의 내경과 교정에 심었던 것이다.

세월이 엄청 흘렀다. 졸업한 뒤 뒤돌아 보지 못했던 모교였다. 군 생활에, 이민 생활에, 대학 시절은 기억의 기억 속의 먼 편을 차려만으로도 기억의 속해사만 되었고 되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쯤 지났다. 싶었던 그 벚꽃나무가 어찌 되었을가, 급성해서 화창한 4월의 봄 날 모교를 찾아왔던 것이다.

밀집이 있었다. 현대화 과정에서 천지개벽한 고국, 어쩌면 그 벚꽃나무들도 어딘가 밀려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이 활음이 내 마음 속에 길게 자리한 곳에 개회했다.

그리고 가족의 미술관과 대학들이 그들 초대하여 전시회와 퍼포먼스를 열게 했고, 여러 비연한 레에서와 특히 뉴욕에서 많은 개인전을 개회하게 했다.

그는 후드나였던 살트 푸어만(월리스)과 1964년부터 줄곧 같이 파크사이드에 정착한 퍼포먼스와 음악 연주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뉴욕에서 <엑스트라노크>를 공연하자 그 공연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1965년에 그는 열렬한 예술의 동반자이며 실험적인 아내가 그로부터 시계로 같이 살면서 창작 활동을 했다.

그가 자금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자,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강 보험의 혜택을 그녀에게 받게 하려고 결혼하자고 해, 그녀는 1970년에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그가 태극할 때까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같이 하며 살았고 공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특히 그는 비디오 예술에 필요

를 지었다.

모교 내의 신숙 건물들은 낯설고 옛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화려하게 만개한 아름다운 벚꽃들을 보았을 때 나는 다가가 우람한 자태로 서 있는 벚꽃나무들을 쓰다듬고 있었다.

참 유쾌도 살아 남아 아담하고 화려한 벚꽃들이 되어 거기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이 고마웠고 경이였다. 다음의 세월을 마음 속으로 다짐하며 그곳을 떠났다.

조만간에 교회를 맛을 문득씩 서 있다. 뒤돌아 보는 세월 속에 언제까지나 기억으로 남은 추억은 할아버지의 파수원에서 형님이랑 누나랑 같이 뛰놀던 시절이다.

여름 하늘 뜰개구름에 생각을 실어보기도 하고, 그 날은 파수원의 과일나무 사이로 숨막막했던 우리들은 손전구했다.

아마도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의 나무들이 나에게 애착을 가지게 하고 자인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글쎄를 칠 수 있는 날만 오면

홍분하는 이유도 이 뉴욕의 변잡한 거리를 떠나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몇 시간만이라도 본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입구에는 두 그루의 단풍나무가 서 있다.

병원 건물을 신축했을 때 두 그루의 단풍나무를 건물 입구 정원에 심었다.

메일이 다사시며 환자 회진 때문에 드나드는 그곳이 지겹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나와 이 두 그루 단풍나무가 있어 우리들만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문득 아버지께의 남에 퀸즈 시립원을 찾아 갔다. 그들이 내게 전경한 63년 종상을 전하며 아름답게 되어 있는 종나무를 만났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종나무는 초여름 하늘을 떠받치듯 하늘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끝에는 대를 모르듯 하늘로만 쳐다볼 수 있었다. 세월이 어떻게 흘러서 없는 듯 했다.

나무들은, 자연은, 그렇게 나의 친구가 되어 내일을 함께 살아가고 무언의 메시지를 속삭여주고 있다.

나도 또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한 TV 수상자들을 비롯해 비싼 자료들을 마음껏 구입하느라고 연노란 돈이 없어서 빚에 시달렸고, 아내 시계로는 연노란 아랑과 넓은 사랑으로 그를 도왔다.

그가 1994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그 때부터 10년 동안 왼쪽이 마비되어 반신불수로 오른 손으로만 작업을 하게 된 그는 생활을 기울여서 돌보았다.

그는 2000년 구겐하임 미술관에 서 일생의 작품들을 가지고 회고전을 열었고, 그의 작품들은 지금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 14점 정도 세계 각국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에서 현대 미술관에 몇 점만이 있다.

그는 1984년 평정 동안 그리워하던 조국을 35년만에 방문했다. 그가 아파서 몸을 못 쓰게 되자 더욱 우리 가족들을 연루하여 향수를 달았다고 한다.

그는 평정에서 “한국이 살 길은 새로운 길을 빨리 찾아 세계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보화 된 현대의 저술의 대가를 더욱 세계에 알리고 작업의 과정과 그 개념을 중시했다.

또 거칠고 미완성적인 미적 가치 판단을 중시했다.

경기도 용인에 설립된 '백남준 아트 센터'는 그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이름 지은 그의 집문 예술 센터다.

이곳 10개의 전시실에는 수많은 그의 TV 장치, 파리의 전작들, 존 케이지 등의 프라시스 운동 관련 자료, 불교와 관련된 그의 작품들, 그리고 뉴욕에 있던 스투디오의 물건들을 옮겨다가 재현한 '메트로폴리타'라는 방도 있다.

그리고 그의 소장품과 사진 및 기타 자료, 영상 자료, 도서 등을 소장하고, 그의 뜻을 계승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인생과 예술의 정의를 어떻게 결론 지었다.

“음악은 <이>이며, 얼마를 연주하든 <이>가 시기가 지나도 <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진리는 자연의 진리다”(1985).

우리는 한국이 낡은 이 현대 예술의 대가를 더욱 세계에 알리고 그의 작품들을 더 자주 감상해야 할 것이다. <불문학 10>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건축/컨설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대 58) (213) 384-3730
2525 W. 8th St. #201 L.A. CA 90057

The Unipac Communities(M)
홍경일(공대 59) (818) 990-5080
8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6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818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김지영 공인회계사

* 김지영 (농대 82) (213) 385-1985
2860 Wilshire Blvd. #30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숙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8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경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05 S. Vermont Ave. #18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 Corp

윤종원 (사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 39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8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 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686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영대원 82)
Tel (714) 469-4584 (213) 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한남 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광희(상대 83) (626) 400-7074
1618 Chelsea Road #118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 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 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8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권(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법대 58) 882-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2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 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현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현빈(문리 61) 706-758-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8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00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동문 업소록을 재정비합니다”

동창회보의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비즈니스와 그 내용을 여러 동문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지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부터 제 11대 회장단으로 업무가 이전된 만큼 업소록 또한 새롭게 재정비됩니다. 이 업소록은 앞으로 회기연도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업소록 게재는 최소 Box 사이즈 \$1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에 따라 Box크기도 달라집니다. 동문들께서는 23면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를 참조하시어 원하시는 사이즈 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snuausa@yahoo.com 또는 (전화) 818-225-8411 (Fax) 310-515-7883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성(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상대 61)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회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열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측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6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66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현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 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엔지니어링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 Jona CA 9279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종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창홍(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 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8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9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은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6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 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재인(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종규 치과 그룹
* 권종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6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r김재철 치과
김재철(치대 62) (626)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명 치과
오길명(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6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DC, MD, VA 워싱턴DC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상(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396

Choi & Co., CPA

* 최 현(상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성근(상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930
Annandale VA 22003

자산관리

IPM
이태영(상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전광섭(상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개발업

BPS Appraisal Company
박영남(상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기관

동일 시대연구소
이종률(상대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공학

Driveteck, Inc.
* 알달함(상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상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TL-49 Seattle, WA 98124

수익사/동물병원/요양업

한희생(수의 60) (703) 751-3707
28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재욱
박영남(상대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의/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상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도성철내과
도성철(상대 63) (410) 760-6623
1600 G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8)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Cp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중국 종합의료원
이중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scrof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상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nary Heights, 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원섭 (상대 55)
7601 Little River Tr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상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태일러/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강철호 (상대 67)
9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민백(문리 72), 김봉우 (상대 73),
문종현 (사대 84) (770) 992-2363
483 Beaver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열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개발업

Auto Plaza Group, Inc.
이윤진 (상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영(상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상대 71) (678) 397-1025
9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국(상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8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상대 76) 201-940-8043
605 Broad Ave, #206 Ridgfield IL, 60576

이흥미 변호사
이흥미(의대 63) (773) 427-89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8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상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개발업/경영상담

로열 부동산
염우영(상대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철(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ty, Inc.
송성준(상대 75)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상대 66) (630) 207-2515
24 McCormick Drive Oak Brook IL 60052

셀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5)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익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훈(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l. Hosp.
박영호(수의 72) (847) 677-7070
110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의/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종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철(의대 62) (708) 703-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8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현 치과
서승현(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황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05

MA 뉴잉글랜드

수익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귀(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8

JK Realty Trust
김재호(상대 56) (617) 277-7455
PO Box 696 Brookville MA 02448

의료/내과/전문의

강감회 산부인과
강감회(의대 52)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개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정환(상대 52) (734) 65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원(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현(의대 65) (810) 762-9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6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9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준 심장내과 C. A. V. A
윤효준(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2)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 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희(상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6

NY-NJ 뉴욕/뉴저지

건설

!양, 에이즈!!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포도)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762-0812

건축/설계

김세현 건축설계
김세현(상대 65) (21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강미 설계사무소
남강미(상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종욱(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필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2-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번호	변호사	비영리법인	운송 / 유통 / 통관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상대 64) (212) 760-1768 38 W 32nd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현 (김대원 88)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상(농대 64) (201) 868-2255 8135 Bergenline Ave. #2 W. Englewood Cliffs, NJ 07632 Young Suk OH, CPA 오영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8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9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희(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718) 463-3500 38-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원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8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Y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법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on, Attorney at law 정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yne Ave., #9 Fort Lee NJ 07024 무역 / 종합직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열(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택(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종합직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Y 07650 Cosmo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Y 07650 다니엘열 소터비 부동산 이열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태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venue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윤진(상대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영(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IBECONS Int'l 김지혜(상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강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6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시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상주지에 * 전 지역 카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패키지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239-0989 16 W 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1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 / 클러니 / 장금정기 C & K Dry Cleaner 김진지(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희(상대 63) (86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ce Ma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인민(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tal Building Arcade NY 수의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혁(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09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시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 안역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성무(사회과학대 83) (212) 245-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희국(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Y 07650 예술 / 클러니 Nahrath Culture Center 김광철(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연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세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funeral.com 의료 / 내과 / 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8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철(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택(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3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최창호 위장내과 최창호(의대 65)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김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외원 추재택(의대 57) (201) 569-6541 138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성병내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병열 소아과 박병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홍(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복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열(의대 73) (201) 568-39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n. Inc.
김자옥(의대 69) (304) 343-7578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90 Pettit Ave. #1 Baltimore MD 11716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8)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전종필(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환(의대 61) (908) 78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920

의료 / 기타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912
185 Ma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익 치과
이종익(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걸 치과
이성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두희 치과
계두희(치대 67) (718) 9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용환 치과
조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d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훈(의대 59)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의대 54) (212) 795-1240
6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현(의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정현(의대 58)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의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락(의대 6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계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현(의대 70) (973) 574-903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u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필(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전설령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종교 / 교외

돈둔환교회
김장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약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왕복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전봉환(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환 박사 수석교실
조달환(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아 오아이오

상담 / 생활실예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희(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0 Lima OH 45805

수익학 / 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형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245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8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 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s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의 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35-604-4036
56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5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교 외

*앨범 한인교회
최근남 (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hs & Assoc.
송재학(생물과대 77) 49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공인연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ncolnton Rd. #10 Wilmington DE

금융 / 보험 / 리테일
More Bank 이영택(상대 58)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500 Val 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irschman PA

비영리법인 / 리테일 / 잡화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d. #D-202 Melrose Park PA 19027

Jay & CO
최갈려(문리 58) (215) 89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익학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 (수의 60) (215) 843-660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훈민 (수의 61) (215) 636-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ltman Animal Hospital
주기욱 (수의 68) (215) 745-9000
1012 Coltman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ital
전두식(수의 61) (215) 843-68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6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명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효(수의 65) (610) 833-1252
1406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약자 / 오아열

August Moon 연희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이즈미 알성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8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l
김정현(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Timothy Hahs & Assoc. (2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113

Riddle Memorial Hospital
배성호(의대 67) (610) 891-3321
1066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림(의대 56) (215) 641-5323
7170 Lay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기타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TX 유스턴

수익학 / 동물병원

성교 동물병원
이문석 (수의 81) (281) 386-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80 Houston TX 77078

장외사

한국 장외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엔지니어링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UT 유타

서비스 / 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 / 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콘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업소록에 기재되는 동문님의
사업에 무궁한 번창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동문업소 탐방'을 기사 형식으로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소개를 원하시는 분은 후원금 신청란을 사용하셔서 보내 주시고, 또한 업소 이전이나 신업소도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은 동창회보 발행의 후원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문
님들의 새로운 후원금 액수에 따
라 동문님들의 업소에 대해 크기
가 다른 Box로 장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snuaausa@yahoo.com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영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
(공) · 오홍조(치) · 이영록(공) · 이전구(농)

멤버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중(상)

차기 회장 : 오인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 노영호(공)

관악후원회 고문 :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이사장 = 이만택(의)
총무 이사= 송순영(문) 이사= 김은종(상)
재무 이사= 김형주(공) 감사= 박효진(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중민(공·PA)
위원= 한재은(의·IL)·이민연(법·TX)·윤상래(수의·NE)·김지영(사·LA)·신용남(농·NY)·함은서(을·WA)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강호석(상)
사업국장 : 이경희(문)
설외국장 : 이상대(농)
감 사 : 김재영(농) 박평일(농)

회보 임원

발행인: 김은중(상)
 상임고문: 방석훈(농)
 편집위원장: 지인수(상)
 편집주간: 이기준
 편집위원: 박양중(문) 김재영(농) 나철삼(문) 이종도(공)
 편집위원: 김지영(사) 김석수(무) 이원영(문) 김종하(이문)

조각

김일환(CH) 김기태(LA) 조동준(LA) 최용완(LA) 한창선
(NY) 백순(WA,DC) 육길원(CH) 이청광(LA) 정홍택(PA)
윤상래(MA) 김창수(NY) 임승패(SF) 장석정(CH) 이석구
(NY) 김재환(WA) 정요진(LA)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한종철 (시대 82입)	562-860-8544(o) bluebirdan@hotmail.com
	차기회장	서처원 (공대 89입)	213-415-1764 charliesuh49@gmail.com
북가주	회장	이규우 (문리 72입)	408-891-2000 president@nuaa-nc.org
	차기회장		
샌디에이고	회장	임용국 (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eem@gmail.com
	차기회장	서정열 (공대 81입)	858-740-4843 cysun727@gmail.com
	회장	김영만 (시대 59입)	201-401-8977 ymkir30@gmail.com
뉴욕	차기회장	김창수 (약대 64입)	212-760-1768 changsook1mcpa@hotmail.com
	회장	공순옥 (간호대 66입)	410-481-4425 sssong019@verizon.com
워싱턴DC	차기회장	송상희 (문리 71입)	703-298-9470
	회장	김사직 (시대 59입)	630-523-1371 kimsajik@yahoo.com
시카고	차기회장	김정호 (의대 71)	708-922-0748 fhmcUSA@gmail.com
	회장	조화연 (음대 64입)	610-328-2563 robertw@juno.com
필라델피아	차기회장	주지옥 (수학 68입)	215-938-1097
	회장	탁순대 (시대 58입)	713-984-2066 tatsund@yahoo.com
휴스턴	차기회장	구자룡 (상대 77입)	713-206-1041 jykeey2003@yahoo.com
	회장	이 준 (공대 73입)	469-235-6196 unlee41@yahoo.com
댈러스	차기회장	윤수경 (음대 77입)	972-248-8811
	회장	박 민 (음대 80입)	
조지아	차기회장	김정호 (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bank.com
	회장	김병국 (공대 71입)	781-367-5593 byunggkim@yahoo.com
뉴잉글랜드	차기회장		
	회장	신학철 (공대 75입)	651-351-1622 hshin@mm.com
미네소타	차기회장	정운옥 (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회장	신창범 (법대 73입)	425-562-0808 chngshin@eschelon.com
워싱턴주	차기회장	이승택 (수학대 75)	
	회장	송원길 (의대 58입)	614-378-2918
오하이오	차기회장		
	회장	이상영 (심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하와이	차기회장	전수진 (음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회장	배규년 (시대 68입)	913-709-2335 kybae8533@gmail.com
하틀랜드	차기회장	강수관 (간호대 68입)	913-288-0228 chungmm@yahoo.com
	회장		
플로리다	차기회장	박창일 (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sum.net
	회장	배유환 (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e@yah.edu
유타	차기회장		
	회장	김기현 (문리 51입)	919-530-6541 gideon80@square.com
캘리포니아	차기회장		
	회장	전남일 (시대 72입)	719-592-0037 jhonlieun@hotmail.com
로키 마운틴스	차기회장		
	회장	오윤환 yho@rathoon.com	
애리조나	차기회장		
	회장	박진희 (농대 78입)	503-648-0775 hupark@fionomix.com
오레곤	부회장	이은선 (의대 83)	503-807-4666 unyeon.lee@comcast.net
	회장	윤재중 (농대 55입)	907-223-0887 bol1043@hotmail.com
알래스카	차기회장	배서현 (농대 58입)	907-561-0818
	회장	김서권 (시대 59입)	647-340-8182 jeonhoye@hotmail.com
캐나다 온타리오	차기회장		
	회장	이민철 (시대 59입)	604-228-1684 in-cheol-lee@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부회장	조서경 (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철 [미대 71] 778-322-7732
	회장	조용환 (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차기회장		

여행사 빅뱅이슈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남미, 아프리카, 인도, 유럽

남미 일주 2012.12.15
남미 10개국 14,499원

아프리카 일주 2012.12.15
아프리카 13개국 15,999원

아일랜드 일주 2012.12.15
아일랜드 13개국 13,999원

인도/네팔 일주 2012.12.15
인도/네팔 12개국 2,999원

스페인 특선 2012.12.15
스페인 11개국 2,699원

US아주투어 / LA아주투어 SINCE 1984

대표 전화 (213) 388-4000 1-800-933-3011 서울 02-522-8686

가을맞이 모국관광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서해/남해/제주 일주 7일 1,599원

문화관광축제 1,399원

내장산 단풍관광 1,399원

모국관광 10일 \$1,849

제주관광 특선 4일 \$1,299

모국 7일+서울 2박 9일 \$1,799

동해일주+제주 7일 \$1,599

동해일주 5일 \$1,399

서해/남해일주+제주 7일 \$1,599

서해/남해일주 5일 \$1,399

중국환원일주 14일 \$2,299

명품 유럽 3월 11일

동유럽 6개국 9일 \$2,649

서유럽 6개국 11일 \$2,799

동유럽 12개국 18일 \$3,999

서유럽 12개국 18일 \$3,999

이탈리아/동유럽 7개국 14일 \$3,299

이탈리아/동유럽 7개국 14일 \$3,299

그리스/터키 10일 \$2,699

스페인 포르투갈 11일 \$2,699

아주관광,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주크루즈

정통 알래스카 8일 1,299원

크루즈관광 1,299원

다즈니 크루즈 8일 2,699원

파나마운하 12일 1,849원

바하/메시코 일주 399원

카리비안 8일 499원

리베리아 8일 699원

남미크루즈 8일 1,599원

서지중해 10일 1,899원

동지중해 10일 2,199원

아주크루즈 213-388-9404 동부 800-956-3939 O.C. 714-534-1200 트렌스 310-217-0770 샌디에고 800-994-1233 833 S. Western Ave #35-A Los Angeles CA 90005